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등학교 윤리과의 논술수업 방안 연구

지도교수 양 방 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진 규 섭

1997년 8월

고등학교 윤리과의 논술수업 방안 연구

지도교수 양 방 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1997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제출자 진 규 섭



진규섭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1997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국문초록>

고등학교 윤리과의 논술수업 방안 연구

진 규 섭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방 주

고등학교 윤리과는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윤리적 인식체제와 이념적 시각을 정립하고 건전한 가치관 단 능력과 실천의지를 기르게 하기 위한 교과이다. 이러한 윤리과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윤리과 교육은 학력위주의 사회적 풍토와 물질 만능주의, 입시위주의 교육여건과 더불어 교과목표가 비교적 추상적이고 해설위주로 되어 있어 가치·태도 등 정의적 영역에 대한 탐구 학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윤리과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윤리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의 개선 방안으로 논술을 윤리과 수업에 도입하였다.

논술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합당한 근거에 바탕하여 말이나 글로써 논하고 진술하여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행위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과 종합적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의 능력을 길러 준다. 또 논술의 지식 통합성은 윤리과의 학제적 성격과, 진인성은 진인적 인간을 기르 고자 하는 윤리과의 목표와, 능동성은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윤리과의 성격과, 고등 정신성은 올바른 가치관 단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하는 윤리과의 지도 방법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윤리과에서 논술 을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윤리과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윤리과에서 논술을 도입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날 수 있다. 단원 전개에 따라 선 논술수업 형태, 후 논술수업 형태, 중간 논술수업 형태가 있고, 수업 전개와 관련하여서는 도입, 전개, 정리, 평가의 각 단계마다 적당한 형태의 논술을 도입하여 수업을 진 행할 수 있다. 논술을 도입하여 수업을 하는 과정은 내용이해 단계, 문제 발견 단계, 문제 해결 단계, 정당화 단계, 내면화 단계로 이루어진다. 윤리과에서의 논술문 평가는 문법적 측면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가치나 태도를 파악하여 수업에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 논술수업 형태로 정리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논술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일제 논 술수업의 기법과 학급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편성하여 소집단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 소집단별로 하나 의 논술문을 작성하게 하는 소집단 논술수업의 기법을 활용하여 논술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의식 수 업에 비해 호응도가 높았고, 학생들의 논리적,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효 과적인 윤리과 논술수업의 방안은 후 논술수업 형태로 정리단계에서 소집단 논술수업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 본 논문은 199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3
II. 논술과 윤리과 교육	5
1. 윤리과 교육의 의의와 목적	5
2. 윤리과 교육의 실태	9
3. 논술의 의의와 기능	14
4. 윤리과 교육의 개선과 논술	18
III. 논술문 작성의 지도	23
1. 기본방향	23
2. 논술문 작성의 절차와 유의점	25
3. 논술문의 유형과 작성법	31
4. 논술문의 평가와 활용	35
IV. 논술수업 방안	39
1. 논술수업의 형태	39
2. 논술수업의 실제	46
V. 결론	57
참고 문헌	61
〈Summary〉	64
〈부록〉	
윤리 교과서에 따른 논술문제 모음	66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비도덕적이고 반 인륜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윤리의식과 공동체의식이 근본에서부터 실종되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덕·윤리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나아가 윤리적 혼란의 극복과 도덕성 회복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세계화를 향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도덕적 인식 체계를 갖춘 민족이 21세기를 주도한다는 여러 주장들을 감안할 때 윤리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¹⁾

또한 오랜 세월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공통된 역사적 경험하에서 동질적인 문화와 전통을 형성, 계승하면서 찬란한 번영을 이룩했던 우리민족에게는 동·서 진영간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이라는 냉전시대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 있다. 남북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립 상황하에서 현실적으로 당면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의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윤리교육에서 해결 할 필요가 있다.²⁾ 이와 같은 몇가지 과제의 해결에 있어서 학교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윤리과 교육은 더욱 큰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윤리과 교육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윤리관을 확립하고 건전한 도덕성을 함양하게 하는 주된 임무를 담당하고 지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윤리교육은 이와 같은 교육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

1) 조남국 외(1995),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과정의 이론적 탐색(Ⅰ)”,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제6호, pp.110~117.

2) 한국국민윤리학회 편(1987), 『국민윤리학개론』, 형설출판사, pp. 15~16.

하지 못하는 면이 많다. 그 이유는 첫째, 윤리과는 청소년들의 도덕적 가치관이나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의적 교육 목표를 지니고 있음에도 지식 전달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현실은 학생들의 자유훈론 탐구나 사로를 통하여 스스로 가치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능동적, 자율적 수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방법은 훌륭한 도덕적 생활인을 형성하는데 실패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령은 대개 15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기로 심리적·사회적으로 완전한 성숙을 이루지 못한 시기이므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앞으로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에서 기인하는 윤리과의 위상이다.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진학과 직결되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의 운영에 의한 학교 수업 풍토로 인하여 국·영·수 과목과 같은 도구 교과만을 중시하는 지식 전달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기술 습득 내지 취직에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현재의 교육적 분위기에서 윤리과 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³⁾

셋째, 윤리 교과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이해해야 할 지식, 개념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300여쪽 분량의 교과서를 학습하는데 고교 3년의 과정 중 최소 단위인 6단위의 시수 배당은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 데에도 모자란 실정인에서 수업 진도 확보 및 입시와 관련한 학력 제고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어 윤리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다양한 학생 중심의 수업방법의 적용 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윤리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윤리교육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고,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는 건전한 도덕적 생활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윤리수업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육적 현실을 하루아침에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논술지도를 윤리과 수업에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교육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보다 효과적인 윤리과 교육의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논술은 윤리과

3) 교육부(1996), 『고등학교 윤리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 4.

교육의 목표에서 볼 때 특히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치·태도를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논술은 학생들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자율적 가치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논술 문제들이 사회 윤리나 개인 윤리, 도덕 철학적인 측면에서 개인(또는 집단)이 어떠한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는 것으로 윤리교과의 목표 및 지도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리 과목 자체가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비중이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및 과제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부수적으로 현재의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탈 교과, 교과 통합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윤리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재 학교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식적이고 입시 위주의 윤리교육을 지양하고 윤리수업의 개선 방안으로 논술지도를 윤리교육에 접목하여 보다 효과적인 윤리수업의 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한계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일반적인 논술지도 방법, 논술을 활용한 교육방법등에 관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였다. 그러나 논술에 관한 자료들은 대부분 국어나 작문에 관련한 것이어서 윤리과의 논술지도에 참고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논술지도의 방법을 윤리교육 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논술론에 대해서는 논술지도 방법에 관한 이론서나 논술 참고서들을 활용하였고, 논술지도를 윤리과에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례 연구물들을 활용하였다. 이 경우 논술에 관한 이론서나 논술 참고서들은 작문과의 입장에서 논술고사를 위한 입시를 전제로 논술을 다루고 있으며, 논술을 활용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례 연구물들은 현장연구의 결과가 드러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수업에서 논술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방법과 한계를 제시하고, II.

논술과 윤리교육에서는 1. 윤리과 교육의 의의와 목적, 2. 현행 윤리교육의 실태를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상의 문제점과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찾아보고, 윤리과 교육의 문제점 극복방안으로 3. 논술의 의의와 기능, 4. 윤리과 교육의 개선과 논술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Ⅲ. 논술문 작성의 지도는 일반적인 논술론에 대한 부분으로 1. 논술지도의 기본 방향, 2. 논술문 작성의 절차와 유의점, 3. 논술문의 유형과 그에 따른 작성법, 4. 논술문을 평가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서술하였다. Ⅳ. 논술수업 방안은 실제 윤리과에서 논술지도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1. 논술수업의 형태에서 단원전개에 따른 논술수업 방안과 수업단계에 따른 수업 방안을 바탕으로 논술수업 모형을 구안하였고, 2. 논술을 적용한 실제 수업사례를 일제 논술수업과 소집단 논술수업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Ⅴ. 결론은 논문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과 몇가지 발전적 제안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를 직접 활용하고자 할 때 보편성, 객관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윤리과 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며, 윤리과 수업 방법에 있어서 제안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이 강함을 밝혀 둔다.

II. 논술과 윤리과 교육

1. 윤리과 교육의 의의와 목적⁴⁾

고등학교 윤리과의 의의나 목적에 대해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된 정설을 제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윤리과는 그 동안 교과 내용에 대한 기초 연구가 부족했고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윤리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고등학교 윤리과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보편적 이상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윤리적 인식체제와 이념적 시각을 정리하고, 건전한 가치판단 능력과 실천의지를 기르게 하기 위한 교과’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윤리과는 윤리학을 가르치는 순수한 학문 중심의 교과가 아니며, 우리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윤리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르고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교과이다.

윤리과에서 다루어지는 윤리나 이념 문제는 어느 한 분야에만 속하는 탐구주제가 아니며, 윤리과는 철학, 미학, 종교학, 윤리학 등 규범 과학과,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그리고 교육학, 사회 심리학 등 응용과학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학제적(學際的, interdisciplinary)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교과이다.⁵⁾ 학문의 역사가 짧은 윤리과 교육학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통합적 성격을 띤 교과 교육학으로서 학문적 체계를 수립해 가고 있으며,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따라 그 체제와 내용을 개정하고 종래의 고등학교 ‘국민윤리’를 ‘윤리’로 교과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교과의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해

4) 윤리과 교육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는 교육부(1995),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 60~65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5) 윤건영(1992), “「윤리」과 교육내용 체계화에 관한 연구”, 한국 도덕·국민윤리과 교육학회, 『도덕·국민윤리과교육』, 제3호, p. 322.

서 교과와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윤리과의 의의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윤리과는 한국인으로서 올바른 인식 체계를 정립하고, 건전한 판단능력과 실천의지를 기르게 하기 위한 교과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윤리적 지식과 가치판단 능력 및 태도를 습득하게 하여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것은 윤리과는 바로 ‘한국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삶, 즉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윤리적 인식체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동 요소인,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제시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는 공교육체제를 통하여 자기의 국가와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기본 가치나 덕목 등을 후세들에게 교육하여 왔다.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민족교육이나 국민형성을 위한 정치교육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국민통합이 내적으로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윤리과 교육을 통하여 국민으로써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상정하고 그에 필요한 행동적 요소를 설정하여 교육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가장 중대한 과업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민형성(national building) 교육은 학교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사회 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사회화 교육에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둘째, 고등학교 시절은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에 대하여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중학교 도덕과에서 익힌 바른생활 습관과 규범의 내면화를 바탕으로 하여, 윤리과에서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과 윤리의 인지적 틀을 확립하고, 자율적인 인격형성에 힘쓰게 해야 한다. 이것은 이념적 시각의 정립으로, 이념교육이 바로 고교생의 윤리·도덕적 발달 단계와 그 시기에 요청되는 이념적 시각의 형성과도 부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념교육이라 함은 과거 정통성이 부족했던 역대 정권이 자신들의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던 반공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란 "어떤 특정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근본적으로 받들어 주고, 그들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의식적으로 깨닫게 해 주는 하나의 통합된 신념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념교육은 청소년으로서 갖추어야 할 이념적 신념체계이며 민족 정체성에 바탕을 둔 주체적 세계관을 갖도록 교육함을 뜻한다.

인간의 윤리·도덕성 발달에 대한 에릭슨(Erickson, E.)이나 콜버그(Kohlberg, L.), 리코나(Lickona, T.) 등에 따르면 10대 후반의 고등학생들에게는 '이념적인 마음(ideological mind)'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이데올로기와 신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자기들의 삶과 사회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구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념체계를 통하여 자기들이 겪고 있는 혼돈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정체성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념과 신념체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념적 시각에 따른 자율적 인격형성은 고등학교 시절에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대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윤리과의 의의에 따른 윤리과 교육의 목적은 '인본교육'과 '가치관 교육', '시민교육'과 '통일교육'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인본교육과 가치관 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윤리과 교육의 의의 중 첫 번째 의의인 '윤리적 인식 체계'와 관련이 깊고, 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은 두 번째 의의인 '이념적 시각'과 관계가 깊다.

첫째, '인본교육'으로서 윤리과의 목적은 인간 존중과 생명 존중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위주의 풍토와 현대 산업사회에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 및 출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비인간화로 변질되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학입시에서 배점이 높은 '국·영·수'의 도구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실업계 고교에서는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이 우선시 되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인간 중심 교육은 경시되고 있다. 이같은 풍토를 극복하기 위해 윤리과에서 인간 중심의 윤리와 인간성 회복을 중시하는 우리의 전통사상 교육을 통해서 인간교육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가치관 교육'으로서 윤리과 교육의 목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국민의 도덕성 상실과 윤리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가치관 교육이라 함은 우리가 개인이나 사회 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인식 체계를 지니게

하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윤리적 지식과 가치판단 능력 및 생활태도까지 형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도시화,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하여 과거 가치관 교육의 주된 임무를 담당하였던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으므로 학교의 윤리교육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었다. 그러므로 윤리과에서는 한국인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관과 윤리관을 습득하게 하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윤리적 생활태도와 학생들의 가치판단 능력을 신장시키고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형성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공동체 교육'으로서 윤리과 교육의 목적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옹호하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민족 공동체적 자세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신념과 민주적 생활양식의 생활화이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공동체 교육을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주체적 민족 의식과 더불어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계의식(globalization)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넷째, '통일교육'으로서 윤리과 교육의 목적은 남북한 간의 이념적 대결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의 통일 여건에서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넓은 안목과 미래 지향적인 의식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6.25 전쟁 이후 북한을 대결상대로 규정하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반공교육과 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대화의 상대, 같이 살아가야 할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북한과 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던 통일·안보교육을 거쳐서 이제는 우리의 경제성장과 국력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주도하는 통일대비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남북이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 공동체로서의 적극적인 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등학교 윤리과의 교육 목적은 서로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때로는 중복되는 일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본교육, 가치관 교육, 공동체 교육, 통일교육은 한국의 청소년으로서 지녀야 할 종합적인 윤리의식과 이념적 시각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인격형성의 방

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2. 윤리과 교육의 실태

1)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의 문제점

1996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내용의 개선을 위해 지역 및 학교의 실태·요구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현실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⁶⁾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편성 실태를 보면 지난 5차까지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지역 사회나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교육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기준 시안과 별 다름 없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단지 교양과목의 선택과 교과목의 학년별 이동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윤리교과와 경우에도 5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전체 6단위로 변함이 없으며, 5차 교육과정에서는 각 학년마다 2단위씩 이수하게 되어 있었으나 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 따라 이수 학년과 이수단위가 다를 뿐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윤리과 교육의 문제점을 교육적 의도와 교육의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도덕 및 윤리에 대한 정적 관점, 즉 고정된 도덕관 및 윤리관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덕적 생활 원리로서 ‘윤리(倫理)’나 ‘도덕적 원리’라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그 의미를 명백하게 정의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윤리적 의식의 주체로서의 윤리적 인간을 도덕적 원리로서의 윤리에 종속시키는 것은 인간을 도덕적 원리의 주체가 아닌 도덕적 원리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교육내용에 대한 경직된 지식관, 즉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유일한 답으로 취급하는 경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6) 교육부(1995), 『고등학교 윤리 교육과정 해설』, 앞의 책, pp. 5~6.

7) 안귀덕 외(1993), 『현대 한국 사회의 윤리적 문제와 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 225~236.

엄격한 의미에서 정답이 없는 것들이 많다. 특히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윤리과 교육에 있어서는 이러한 종류의 질문들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교육에서는 정답이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강한 경향을 보여 왔으며, 현행 우리나라 윤리과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듯 하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현행 윤리교과서 첫째 단원인 '인간과 윤리'에서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 '도구적 인간', '사회적 존재', '문화적 존재'로 특징지어져 있는데, 이렇게 인간을 특징짓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엄격히 말해서 이것은 '인간의 특징' 그 자체라기 보다 이에 대해 이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인간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절대 불변의 정답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에는 이들을 하나의 대답을 넘어서 유일한 정답처럼 제시하고 있다.

셋째,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있어서 내용 구성상의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학제적 성격을 지닌 윤리과의 교과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⁸⁾ 윤리과의 교과내용의 체계화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당면 문제점이다. 여기서 교과내용을 체계화한다는 것은 교과내용 전체가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⁹⁾ 아울러 도덕·윤리교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교과내용의 구조화이다. 현행 고등학교 윤리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체제는 교과서관의 일반적 체제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성격면에서 그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윤리교과서의 체제는 윤리과 교육의 성격과 목표에 알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¹⁰⁾

넷째, 교과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해설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 내용면에 있어서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나 이해의 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윤리적 개념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 사고와 판단을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의 제시나 구

8) 이인명(1996),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 내용에 관한 분석 연구 - 5·6차 교육과정에서 서양 윤리 사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 47.

9) 윤진영(1992), 앞의 논문, pp. 313~315.

10) 이인명(1996), 앞의 논문, p. 48.

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보다는 단지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¹¹⁾ 또 윤리 교과서가 너무 어렵고 배워야할 내용이 너무 많다. 학제적 성격에 걸맞게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윤리학, 철학 등 너무나 많은 부분을 모두 다루려다 보니 내용을 너무 압축하여 개념 지식 등이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 윤리과 교사들은 방대한 내용을 망라한 교과서의 지식만 가르치는 데도 시간이 모자란 실정이므로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는 눈돌릴 여유조차 없다고 하소연한다.

2)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점

윤리과가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을 다루는 교육이라는 점이다. 또한 윤리과의 교육적 성과도 지적 영역보다는 정의적 영역이 주종을 이룬다. 그러므로 정의적 영역의 형성 및 변화를 시도하는 정의적 교육은 일반적인 수업 과정과는 대조되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¹²⁾

윤리과의 새 교육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생들의 사고와 이해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문제 사태에 관한 논의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방법에 있어서도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도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도되어야 하고 그러한 판단들이 자율적·능동적으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계획되고 지도되어야만 한다.¹³⁾

윤리과 교육에서 기대하는 수업 목표인 지식, 지적 기능, 가치·태도, 그리고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지도방법은 크게 교사들의 더 활동하는 교사 중심의 방법인 주입식 지도방법(expository teaching)으로 강의법, 시청각 매체 활용법 등과, 학생들이 더 많이 사고하고 활동하는 방법인 탐구식 지도방법(inquiry teaching)으로 토의법, 문답법, 모의 및 역할 놀이법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는 완전한 주입식이나 완벽한 탐구식은 거의 있을 수 없고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수업이 진행되느냐의 문제가 남게 된다. 윤리과가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의도하는 교과이므

11) 위의 논문, p. 47.

12) 교육부(1995), 『고등학교 윤리과 교사용 지도서』, 앞의 책, pp. 18~19.

13) 김희식(1982), “국민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8집, 공주교육대학, p. 36.

로 주입식 지도방법 보다는 탐구식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토의하고 문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떤 입장이나 견해에 대하여 여러 동료들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고, 또 동료 집단의 가치관이나 규범이 눈 앞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을 인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정의적 영역은 일반적으로 교육받을 때 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이러한 윤리과 교육목표상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은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의한 주요과목 중심의 학교 수업 풍토 등으로 인하여 최소 단위의 수업 시수로 진도 확보 및 학력 제고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어 결국 지식 전달을 위한 주입식 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학생 중심의 수업 방법의 적용을 어렵게 하였으며, 학습자료 제작, 교재연구 등 교사의 현장연구 활동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내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수법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윤리수업시 어떤 지도방법을 활용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강의법, 강의법과 문답법 병행, 문답법과 토의법 병행, 토의법, 시청각 매체 활용법의 순서로 나타났다.¹⁵⁾ 이러한 지도방법의 순위는 비단 강원도만의 실태가 아니라 전국의 고등학교 윤리과 수업의 실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행 윤리과 교육의 교수-학습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의 윤리과 교육은 인간 교육보다 지식 교육 방식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격’을 예로 들어보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현행 교사용 지도서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인격의 의미’, ‘인격 완성’ 등과 같이 ‘인격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인격에 대해서’ 가르치는 대신 ‘인격자가 되도록’ 가르칠 수도 있다. 여기서 앞의 경우를 ‘지식 교육’이라고 부른다면 뒤의 경우는 ‘인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격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과 ‘인격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인격에 대해서 아는 것’과 ‘인격자가 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말하자면 ‘인격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대신 ‘인격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 ‘윤리

14) 교육부(1996), 『고등학교 윤리 교사용 지도서』, 앞의 책, pp. 21~25.

15) 오선근(1993), “강원도내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수법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 29.

적이 되도록' 가르치는 대신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 교육 활동은 현대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얕'과 '삶'간의 괴리(乖離), 또는 '지식'과 '실천'간의 괴리(乖離)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공헌하기 보다 오히려 영속화 시키는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¹⁶⁾

둘째, 윤리과 교육은 대부분 지식 전달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덕목에 대한 단순한 소개에 그치고 있어 학생의 능동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그들을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윤리과 교육의 핵심인 자율성과 비판정신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에 의한 학습보다는 교수자에 의한 가르치기에서 성립했다.

셋째, 윤리과 수업이 학생 스스로의 사고력에 호소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권위주의적으로 서서히 가르친 모습이다. 즉, 독단적이라고 하겠다. 이성이 결코 도덕적인 판단의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인데 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은 곧 타율적인 것으로써 가치의 갈등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다.¹⁷⁾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윤리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과목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의 교수-학습 방법을 답습한다면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교육적 성과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윤리과의 경우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윤리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윤리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의 개선 방안으로 논술을 윤리과 수업에 도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업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1세기를 주도할 미래의 역군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교육으로부터 탈피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학교교육은 죽어 있는 지식을 암기 위주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고

16) 안귀덕 외(1993), 앞의 책, pp. 232~236.

17) 이용봉(1994), "현행 고등학교 윤리교육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p. 22.

논술수업을 통하여 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즉, 과거의 암기식 교육이 컨베이어 벨트를 지키는 70년대식 단순 숙련공의 배출에 적합한 방식이었다면, 오늘날 정보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조적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논술수업과 같은 방식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¹⁸⁾ 또 논술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므로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기초를 제공한다.¹⁹⁾

3. 논술의 의의와 기능

인간이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을 구술, 글로 표현하는 것을 기술이라고 했을 때, 말이건 글이건 그 표현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설득(persuasion)을 하고자 하는 어떤 논리성을 지니게 될 때 이를 논술이라 한다.²⁰⁾

‘논술’의 사전적 의미는 ‘의견을 논하여 진술한다’ 또는 ‘어떤 주제에 관한 토론 또는 비판적 연구, 또는 어떤 주제를 토론하면서 작문하는 연습’²¹⁾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쓰기 또는 말하기’를 통하여 어떤 입장 또는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술은 말보다는 글로 기술하는 쪽에 비중이 크며 결국 논술이란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논술이란 글을 쓰는 능력이다. 그러나 단순히 쓰는 능력만은 아니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통하여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이다. 또 논술은 논증을 포함하고 있는 글로써, 어떤 문제에 대해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는 글쓰기이다. 그러므로 타당한 논거의 제시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논리적인 글쓰기라 할 수 있다.²²⁾ 다시 말하면 논술이란 일정한 주제(사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견해, 주

18) 한겨레신문, 1997. 1. 14.

19) 한국 논리논술대학원 편(1997), 『논술교육정론』, 한국철학회 논리논술대학원, pp. 312~315.

20) 대전직할시 교육연구원(1994), 『논술지도의 이론과 실제』, 대전직할시 교육연구원, p. 10

21) 김상대(1994), “논술지도의 교육적 의의”,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논술지도의 실제』, 앞의 책, p. 10.

22) 김홍준(1996), “논술활동을 통한 가치탐구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장)을 합당한 근거에 바탕하여 말이나 글로써 논하고 진술하여 상대방(독자나 청자)을 설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논술문이란 이것을 글의 형태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²³⁾

글을 잘 쓸 수 있는 기능, 특히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사고를 전개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논술 기능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의 하나이다. 논술 기능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나 학문적 성취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회 생활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도 필수적인 기능이다.²⁴⁾

논술능력은 고등학교교육의 여러 교과에 두루 통용되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그 요소는 '발산적 사고의 태도와 능력'을 말한다. 발산적 사고란 수렴적 사고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언어활동을 예로 들면, 수렴적 사고가 받아들이는 이해 중심의 활동이라 한다면, 발산적 사고는 밖으로 표출해 내는 표현 중심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산적 사고를 능동적 사고 또는 주체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발산적 사고의 태도와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요 기술과 학문도 발전할 수 있다. 논술이 학생들에게 발산적 사고의 태도와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객관식 시험의 능률성에 의지해서 내팽개쳐 버렸던 사고력의 반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체적·능동적으로 사고하는 태도와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 활동이 압축된 형식이 바로 논술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발산적 사고의 태도와 능력이기에 이 점을 중시해야 한다. 논술은 발산적 사고의 태도와 능력을 기본으로 하는 언어활동이기에 요구되고 중시된다는 것이다.²⁵⁾

논술은 주어진 과제를 논리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언어로 서술하는 글쓰기이다. 논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

학교 대학원, p. 4.

23) 한국철학회 논리논술대학원 편(1997), 앞의 책, p. 211.

24) 박영목(1994), "논술지도의 원리와 절차",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앞의 책, p. 38.

25) 김대행(1994), "논술지도의 발전적 방향",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앞의 책, pp. 19~23.

적 사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종합적으로 문제를 검토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언어형식으로 표현하는 글쓰기의 원리를 터득해야 한다. 논술의 내용은 논리적 사고와 종합적 판단이며 형식은 글쓰기 일반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논술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⁶⁾

첫째, 문제의 발견으로서의 논술이다. '문제 발견'이란 설명, 해결, 개선, 입증, 분석, 선택 등이 필요한 사상(事象)을 독자적으로 찾아내는 일을 가리킨다. 문제의 발견은 구체적인 대상은 물론 추상적인 관념 속에서도 가능하다. 역사적 사실이나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례들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음은 물론, 사고나 이념 등의 영역에서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연역이나 귀납 등은 사고 방식과 연관되는 것이며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등은 이념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들을 실상황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여 찾아내어 논의의 기능으로 삼는 것이 문제의 발견이다. 물론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논술이 시작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논술의 모든 과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논술은 글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글의 형식적 조건은 사고의 논리적 전개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견한 문제를 언어적 과정을 통해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문제 해결로서의 논술이다. '문제 해결'이란 문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해 마련되는 대처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대처 방식이 문제된다. 그것은 합리적이고 사리에 맞는 방식이라야 한다. 합리적인 것은 자체의 논리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사리에 맞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논리에 맞더라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문제 해결이라 할 수 없다. 지극히 주관적으로 혹은 아집을 가지고 남에 대한 고려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해결이 아니다. 남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보편성을 지닌 방식이라야 한다. 문제의 해결은 발견한 문제에 대해 다면적으로, 그리고 자주적으로 판단하여 그 문제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즉, 문제에 대한 판단의 제시가 있어야 문제 해결의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논술이 주체적인 사고의 방법이라는 의미는 살아난다. 문제를 조직하고 그 해결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모색하는 과정과 결과를 학문이라 한다면, 학문 혹은 공부라는 것은 문제를 확인하고

2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5), 『논술, 출제와 평가의 실제』, 한샘출판사, pp. 42~51.

그 해결을 모색하는 일이다. 대학에서 하는 학문은 물론 중·고등학교에서 학습하는 일도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논술은 학문을 하는 데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교육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셋째, 종합적 사고로서의 논술이다. '종합적 사고'란 문제와 그에 관련된 여러 사항(인간, 사회, 자연, 문화 등)을 상호 연관속에서 파악함으로써 합리적 사고에 이르는 일을 뜻한다. 원인과 결과, 동기와 수단, 주원인과 부수적 원인, 문제에 미치는 외적인 영향 등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종합적 사고이다. 종합적 사고에는 문제와 그 해결에 관계되는 외적인 조건들도 관계하게 된다. 논리적으로는 옳더라도 관습이나 전통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부적절한 주장이 된다. 따라서 종합적인 사고는 다면적인 판단의 준거를 충분히 마련할 때라야 가능하다. 종합적 사고를 위해서는 언어적 편견이나 논리상의 오류를 벗어나야 하며, 지식을 종합해 내면서 편파적 지식을 극복해야 한다. 종합적 사고는 판단의 합리성을 고양시킨다. 어느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습관은 합리적 사고에 이르는 길이다.

넷째, 논리적 사고로서의 논술이다. '논리적 사고'란 문제의 해결을 논리적 절차와 규칙에 따라 생각하는 과정을 뜻한다.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는 논리적 규칙과 논리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귀납 논리와 연역논리의 차이점을 분명히 안 다든지, 언어의 논리와 현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데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논술에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는 논지 전개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사물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논술이기 때문이다. 객관성 확보의 방식으로서 필요한 논리적 사고는 언어적 활동의 측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언어 자체가 지닌 논리의 오류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논술은 근본적으로 논리적인 절차와 과정이 중시되는 태도이고, 사고이다. 상황을 주관적 편견이나 감정적 흥분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아 내적인 논리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술은 지적인 훈련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논리적 사고는 지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정신 능력이며, 학문 연마의 가능성을 마련해 준다.

다섯째, 비판적 사고로서의 논술이다. '비판적 사고'는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방식의 사고가 아니다. 비판적 사고는 아무리 그럴듯한 주장, 사상, 이론, 이념, 통

님, 상식일지라도 객관적 평가의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평가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고 방식을 말한다. 훌륭한 논술문을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판적 사고의 기능을 길러야 한다. 평소에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진짜 좋은 논술문을 써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능력은 열심히 암기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논리를 잘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논리를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기본 원리만 알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비판적 사고이다. 평소에 “어떤 주장이나 현상에 대해서든 ‘왜?’라고 묻고 납득할 만한 답이 있기 전에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비판적 사고의 능력을 기르는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물어가는 동안에 피상적이고 상식적인 고정 관념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 심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²⁷⁾

여섯째, 글쓰기로서의 논술이다. ‘글쓰기’는 생각을 바르고 효율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논술은 정서 표현의 글쓰기와는 달리 논리성과 합당한 논거를 바탕으로 견해를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필요한 지적 능력도 다르다. 또한 실용적인 글쓰기와도 다르다. 실용적인 글쓰기가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과 현실적 적용을 중요시 한다면 논술은 적용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내적인 논리와 논거의 타당성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논술은 그 자체가 언어 활동의 한 양상이다. 따라서 논술은 글쓰기의 일반적인 절차와 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나 내용 없는 형식을 만들어 내는 기교만으로 논술이 될 수 없다. 사고 방법과 정신적 태도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논술을 통해 글쓰기의 일반적 단계를 익힐 수 있으며, 반대로 글쓰기의 일반적 과정을 통해서도 논술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글쓰기는 지적 활동의 대표적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일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결의 과정을 모색하며, 그 결과를 형식조건에 맞는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글쓰기 과정의 각 단계에서 논술에 필요한 사고와 판단을 체험하게 된다.

4. 윤리과 교육의 개선과 논술

27) 한국철학회 논리논술대학원 편(1997), 앞의 책, pp. 23~30.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논술은 다분히 형성적이고 과정적인 성격을 띤다. 즉 논술은 고정 불변의 절대적 양식이 아니다. 논술은 학교교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의 한 양상 내지는 학교교육의 한 목표쯤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의 현실적 요구 양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논술수업은, 논술의 어떤 전형을 강조하기보다는 '논술적 능력'을 문제삼아야 하고, 문장론적 완성형으로서의 모형보다는, '사고 형성적이고 사고 과정적 모형'으로서의 성격을 띤는 것이어야 한다. 즉 '논하는 과정'의 실체에 해당하는 사고 내용의 조직이나 사고의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이 중시되어야 한다.²⁸⁾

논술은 학생의 '인격'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회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접 접근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교과서 중심으로 형성된 지식 습득의 평가만으로는 개개인의 사람 됨됨이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현대의 복잡한 사회 구조에서는 지식 교육만으로는 교육이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식 교육 외에 실생활 속에서 형성된 인격과 능력을 강조하고, 사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분별력을 심어주기 위하여 논술교육이 필요하다.²⁹⁾ 나아가서 논리나 논술교육은 단지 합리적인 사고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윤리교육적 함축 또한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리의 기본 특성 중 하나인 일관성을 제대로 익힌 사람은 각종 비일관성에 민감해짐으로써 말과 말, 행동과 행동, 말과 행동의 일관성에 주목하게 되고 통합되고 통일된 인격의 소유자일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토론문화, 논술문화는 바로 민주시민 교육의 기초인 것이다.³⁰⁾

이러한 점에서 윤리과에서 논술지도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논술의 성격과 윤리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³¹⁾

첫째, 지식 통합성이다. 우리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분편화 된 교과에 의해서 지식

28) 김홍준(1996), 앞의 논문, p. 33.

29) 장인성(1995), 『논술의 실체와 사고력의 세계』, 미래문화사, p. 22.

30) 한국철학회 논리논술대학원 편(1997), 앞의 책, p. 2.

31) 충청북도교육청(1995), 『논술지도의 이론과 실제』,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자료 95-11호, pp.12~15.

자체가 분편화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있어 왔다. 이러한 교과 우선의 전통은 교과를 학문 지향적으로 몰고 가는 방향으로 일관하였고,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그 동안의 객관식 일방의 대량 평가 풍토와 아울러 그야말로 '지식을 위한 지식' 교육으로 치닫게 하였다. 이른바 죽은 지식의 교육이다. 논술은 본질적으로 지식의 소통과 지식 상호간의 생산적인 교섭을 촉진한다. 진정한 논술 능력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하는 학교교육의 여러 교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지식들을 살아있는 문제 사태 속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논술의 공간이다. 지식통합성은 현대인의 삶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학문의 세계가 전문화될수록 필요하게 되는 교육적 노력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의 유효한 실천적 통로로서 논술이 있다.

윤리과는 앞서 윤리과 교육의 의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학, 윤리학 등의 규범과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응용과학 등을 모두 포함하는 학제적 성격이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윤리과야말로 교과 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지식 통합성으로서의 교과 통합적인 내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과인 것이다.

둘째, 전인성이다. 전인성은 우리 학교교육의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논술이 전인성이 모든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적 능력과 가치 판단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장면으로 논술이 가지는 의의는 크다. 논술의 과정은 논리적인 사유(思惟) 과정과 철학적인 사유의 질을 요구한다. 논리적인 사유의 과정은 과학과 합리의 세계를 지향한다. 철학적 사유는 모든 인식의 근원과 가치를 판별하게 한다. 때로는 심미적 판단의 영역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논제 자체가 사회 현상의 실재를 가지고 오면 실천적 가치 판단에 나아가기도 한다. 어떤 구체적 문제 해결의 이슈를 논제로 가져오면 삶의 총체적 아이디어가 논술의 내용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논술은 전인성의 교육적 의의를 어느 정도 감당한다고 본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윤리과 교육과정에는 윤리과의 의의를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윤리적 지식과 가치 판단능력 및 태도를 습득하게 하여 전인적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전인적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논술의 목적과 일치하는 부분이며, 이런 점에서 윤리과 교육의

의의를 가장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이 바로 논술지도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능동성이다. 논술은 가장 적극적인 학습 행위이다. 모든 앎은 쓰기 행위를 통하여 구체적인 앎으로 확장되거나 구체적인 교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러 장르의 쓰기 활동 가운데서도 논술은 앎과 판단과 인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글쓰기 행위이기 때문에 이의 진정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능동적 글쓰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술의 능동성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표를 시사한다. 능동적 학습이란 곧 실천성이 결부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학습자의 인격적 성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논술의 교육적 필요성으로서 강조되는 학습자의 능동성은 곧 전인성의 개념과도 상통하게 된다. 논술이 학습자의 능동성을 길러준다는 것은 그간의 우리 교육의 과도한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되어 왔다는 반성에 비추어 보면 큰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윤리과는 윤리학을 가르치는 순수한 학문 중심의 교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윤리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르고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교과라는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 또한 윤리과는 건전한 가치 판단 능력과 실천 의지를 기르게 하기 위한 교과라는 점, 윤리교육의 본질은 자율성이라는 점도 이미 살펴보 본 바 있다. 따라서 논술의 능동성을 가장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교과가 바로 윤리과이며, 윤리과에서 논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고등 정신성이다. 고등 정신성이란 달리 말하면 고차원의 사고력을 의미한다. 이는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종합적 사고 등을 의미하며, 그 연장되는 선에서 창의성의 범주와 맥을 잇게 된다. 일찍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정신적 행동을 여러 기능 체계로 설명하는 가운데 인지적 부담의 양이 많이 작용하는 정신 활동 또는 그러한 사고 작용을 고등 정신기능이라 하였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여러 단편적 지식들을 환기하고, 재구성하고, 적응하는 능력, 즉 앎의 전략(cognitive strategy)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앎의 전략으로 진이되어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논술이기 때문이다.

윤리과 교육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종합하는 교과이며,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풍부한 인간의 삶이 여러 측면들을 체득케 하여 현실에서 부딪치는

여러 갈등상황에 있어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하는 교과이다. 또 윤리과의 교육목표가 지식, 지적 기능, 가치·태도, 행위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중 지적 기능은 고등 정신적 기능을 지닌 지식탐구 기능과 탐구 혹은 문제 해결의 기능이라는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것이 바로 고등정신성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종합적 사고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윤리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윤리과에서 논술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논술문 작성의 지도

1. 기본방향

논술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글쓰기이다. 그래서, 논술을 잘 하려면 우선 현실문제를 올바르게 짚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논술교육은 그저 글쓰는 요령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실에 대한 안목을 길러 주고 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어떻게 사회 공동체의 공동선을 이룰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된다.³²⁾

논술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식화된 것이 없다. 시중에 나와 있는 논술 관련 참고서들도 기본적인 논술 테크닉만을 제시하고 아예 논술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모범답안만이 나와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논술의 원리나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논술지도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논술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르치기 전에 '무엇을 쓸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지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내용을 어떻게 생성하느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논술참고서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론은 어떻게 쓰고, 본론은 어떻게 전개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논술주제를 받았을 때 학생들이 가장 당황하는 것은 쓸 내용, 즉 주제와 관련한 배경지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신문 칼럼 하나 제대로 읽지 않고,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하고만 씨름하고 있다. 그렇게 공부한 지식들은 대부분 시험 한 번 치르고 나면 머리 속에서 휘발해 버리고 만다. 지금 학생들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는 문맹이라고 해도 지

32) 조광제(1995), "논술교육의 의의와 논술지도의 실제", 영남철학회소식, 통권 제12호.

나친 말은 아니다. 크게 말해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이 논술 주제를 받고 연필만 굴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무엇을 쓸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개요 짜기 공식을 외게 하고, 본론 전개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친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물론 '내용의 생성'과 '내용의 조직'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의 머리 속에서, 내용이 생성되어 나가는 과정과 그것이 조직되는 과정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학생들이 논술 시간에 억지로 쓴 논술문 보다는 친구에게 쓴 편지글이 더 짜임새가 있는 것은 그때문이다. 쓸 내용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자신의 삶 속에 녹아 있는 것이라면, 짜임새 있는 글로 표현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논술은 '조직'보다 '생성'에 초점을 맞춰 지도해야 한다.

최근 들어 논술 주제와 함께, 관련되는 읽기 자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논술 참고서들이 늘어나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발견된다. 제시된 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현재의 관심과 사고의 방향과는 동떨어진 글들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현재 수준과 논술 주제가 요구하는 수준 사이에는 엄청난 틈이 존재하는데, 이 틈을 그대로 둔 채 추상적인 글만 강요하는 것은 사고의 폭을 넓혀 준다는 논술 본래의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논술이 학생들의 삶을 짓누르는 또 하나의 입시 과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원하는 논술은 시험을 위한 논술이 아니라 삶의 힘이 되는 논술이다.

논술능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고의 태도와 능력이라는 점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도 논술은 그러하다. 이를 도외시하고 논술하는 기술을 습득하려고 한다면 논술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논술을 기술적으로 지도할 문제집이나 학원을 찾는다면 논술능력을 기르는 데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신문 사설이나 읽고 그것을 흉내내도록 한다는 것도 부질없는 것이다. 입시를 위해 논술을 지도할 특별 과외 시간을 편성하여 지도한다면 기술은 길러 줄는지 몰라도 논술이 필요한 이유를 충족시키는 교육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 입시가 눈앞에 현실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실이 그러하므로 허울만의 기술을 교육하는 우를 범한다면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생존경쟁에서 앞서나갈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논술이 사고의 능력인 한, 학교의 모든 교과를 지도하는 교실이 이런 사고의 과정을 기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든 교과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관찰하면서 능동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독창적인 논술을 행할 수가 있다. 어느 교과이든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정확한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바르게 쓰며 문단 하나 하나를 응축력이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엮어 내는 능력은 오히려 단순하다. 중요한 것은 문제 지향적 사고의 태도와 그 결의 능력이다. 그것을 길러 주어야만 우리 학생들이 진정한 의미의 논술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술지도는 학생들에게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논술지도는 구체와 추상의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읽고, 해석하여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거꾸로, 윤리교과나 사회·국어 교과에서 배운 추상화된 지식들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검증되어야 한다. 구체와 추상이 변증법적으로 지양되어 가는 과정이 곧 우리의 삶의 과정이며 논술교육의 과정도 이 과정과 일치되어야 할 것이다.³³⁾

2. 논술문 작성의 절차와 유의점

논술문은 자신의 생각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글이다. 따라서 논술문은 다음의 조건³⁴⁾들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들은 논술을 평가하는 항목과도 직접 관련된다.

첫째, 논술문의 주체성으로 자신의 입장·주장·의견이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써야 한다.

둘째, 주제의 명료성으로 주장하려는 주제가 뚜렷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33) 장봉환(1996), “열린 논술, 자유로운 논술을 위하여”, 읽기 자료집 「자유인을 위한 글읽기」를 활용한 논술 지도 사례, 포항제철고등학교.

34) 한국철학회 논리논술대학원 편(1997), 앞의 책, pp. 259~300.

셋째, 구성의 체계성으로 주제의 구성이 짜임새가 있어야 한다.
넷째, 전개와 논리성으로 논리적인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논거의 적절성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적절하고 타당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표현의 정확성으로 정확한 표현으로 읽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내용의 참신성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부한 설명을 피하고 참신한 내용이어야 한다.
여덟째, 사례의 구체성으로 알아듣기 쉬운 구체적인 논거와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술의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논술문을 작성할 때에는 본격적인 글 쓰기에 앞서 먼저 문제나 자료를 잘 읽어 논점을 파악하여 자신이 주장할 내용을 확정하고 주제를 뒷받침할 만한 논거를 정리하여 개요를 작성하고, 작성된 개요에 따라 정확한 표현으로 글을 쓰고, 글 전체를 다시 읽어가며 되고, 정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논술문 작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⁵⁾

논술문을 쓰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논제를 파악하는 일이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논제가 무엇인지,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즉, 어떤 주제에 대해 ‘논거를 제시하라’는 것인지, 어떤 주장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논리를 제시하라’는 것인지, 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난 후에는 논술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찬성 또는 반대 논리를 제시하라’는 문제라면 출제자가 그 사안이 어떤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지, 어떤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요구한 문제라면 그 주장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포착해서 그것을 논의의 중심으로 하여 논술문을 쓰도록 해야 한다. 또 출제자가 주어진 사안이나 주장에 대해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 판단에 어긋나는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 이기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를 해소하

35) 정남구 외(1995), 『논술 포커스』, 퇴설당, pp. 22~26.

기 위해 바람직한 자세를 논술하라'는 문제에 대해 '지역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내용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논제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는 자신이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논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주제문을 설정하고 논술문을 써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술문의 생명은 논지, 즉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다. 아무리 구성이 좋고, 표현이 정확한 글이라고 해도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빠진 글은 논술문이라 할 수 없다. 사람은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없으므로 논술에는 이른바 '정답'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주장을 하든, 자신의 주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도출해 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상식에 어긋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는 곤란하다. 대개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글을 보면 전제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결론도 독창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명제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 훌륭한 논술문을 쓰기 위해서는 남들이 흔히 생각하는 상식적인 대답에서 한 발만 더 앞서나간다는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조화', '개인과 사회의 조화',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의 조화', '전통과 새로운 가치관의 조화' 등 이른바 '정답'을 쓰면 좋은 논술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들로, 문장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논술문으로 평가받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오히려 구체적인 사안을 예로 들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할 때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지'를 논술하는 것이 훨씬 훌륭한 논술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식적인 결론에 머물러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주장이 상반될 수 있는 경우에도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 방법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것은 어떤 점에 문제가 있고 저것은 또 어떤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버리는 대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단점도 어느 것이 본질적이고, 어느

것이 부차적인지를 잘 판단하여 강조점을 달리하는 것이 좋다. 각각의 장점을 나열하는 평면적인 서술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대안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끝에 단점을 간략히 언급하는 식으로 서술해 나갈 때, 자신의 견해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주제를 설정한 후에는 논제에 부합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충분히 정리해야 한다. 일단 논거를 넉넉히 정리하여 그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지우고, 분량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을 지우면 된다. 논거를 정리하라는 것은 주제를 먼저 정해 놓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필요한 논거를 끌어 들이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주제를 설정할 때 이미 필요한 논거들은 이미 다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평상시에 생각해 둔 문제라면 자신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할 논거가 동시에 생각날 것이다. 그러나 평상시에 생각해 보지 않는 문제에 대해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나서 필요한 논거를 마련하려다 보면, 잘못된 논거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몇몇 가능한 결론을 상정하여 이를 뒷받침할 논거와 그에 대한 반론을 먼저 검토한 뒤 자신의 견해를 확정하여 주제문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다음은 개요의 작성이다. 개요란 서론, 본론, 결론에 각각 들어갈 내용을 요약하여 배열한 것이다. 즉 글을 쓰기 위하여 간략하게 써 놓은 구상(構想)을 말한다. 개요에는 크게 각 단락의 주제를 문장이 아닌 어구로 작성하는 화제 개요와, 각 단락의 주제를 문장, 곧 주제문으로 작성하는 문장 개요가 있는데³⁶⁾ 개요의 작성은 화제 개요를 거쳐 문장 개요로 만드는 것이 본문을 쓸 때 편리하다. 개요를 작성할 때는 우선 개요 항목 간의 관계가 명확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각 항목의 배열 순서는 논리적 질서에 따라야 하며, 각 하위 항목은 상위 항목의 내용을 가능한 한 모두 다루어야 한다.³⁷⁾

개요가 작성되면 그 다음은 본격적인 논술문을 쓰는 본문을 쓰는 단계이다. 작성된 개요가 화제 개요일 경우 개요의 내용을 문장으로 완성하는 방법으로 본문을 써 내려가면 하나의 완성된 논술문이 된다. 본문을 쓸 때, 서론 부분에서는 주의를 환기하여 읽는 이의 관심을 모으고, 본론의 방향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본론

36) 정제한(1996), 『서론개의 논술고개』, 기획출판 거름, p. 21.

37) 성기조(1994), 『논술』, 도서출판 학영사, pp. 24~25.

에서 다룰 문제의 실상, 의미만을 짧게 쓰는 것이 좋다. 서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글의 구성에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한 단락 정도면 충분하다. 본론 부분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이다. 서론을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 구체적 진술, 자기 주장의 제시, 자기가 주장한 내용의 논거 제시, 반론에 대한 반박들의 내용을 담는다. 논술문은 대개 1200자 안팎으로 서술하는 것이므로 너무 많은 쟁점을 잡으려 하지 말고, 3~4개의 핵심적인 것만을 간추려 논지를 전개하는 것이 좋다. 결론에서는 한 단락 정도로 서론, 본론에서 언급한 것들을 종합하여 자기가 주장하려는 것을 하나로 묶어 결론적인 주제문으로 완성하면 된다.

논술문 작성의 마지막 절차는 퇴고(推敲)이다. 이것은 글을 다 쓴 다음 다시 검토하여 잘못된 곳을 고치고, 미흡한 곳을 더 낮게 다듬는 일을 말한다. 퇴고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글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인 만큼 자신이 쓴 글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퇴고는 자기 문장에 대한 자기 평가이므로 다음과 앞에서 제시한 논술문의 조건에 비추어 평가해보는 것도 좋은 퇴고의 방법이다.³⁸⁾

아울러 좋은 논술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야 한다.³⁹⁾

1) 글의 서두에서 논의할 주제나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글의 첫 부분에서 글을 읽는 독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호소력 있는 문제의 설정이 중요하며, 논제를 서두에서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글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좋다.

2) 논술문은 자신의 주장이 확실히 드러나도록 써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논리 전개가 미숙하다고 생각되거나, 주장에 확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를 변명하거나 얼버무려서는 안된다.

38) 위의 책, p. 32.

39) 논술문 작성의 유의점은 다음 몇 개의 문헌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한국철학회 논리논술대학원 편(1997). 앞의 책, pp. 322~324

정남구 외(1996), 앞의 책, pp. 42~54.

김광휘·김진관(1995) 『홀로서기 논술』, 대학진학사, pp. 64~68.

3) 정확한 수사,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문맥에 맞지 않거나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낱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적절한 용어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속어, 비표준어, 외국어 등은 사용하지 말고, 상투적인 용어를 남발하는 것은 금물이다.

4) 논의의 주체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글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가령 ~~에 의하면,이다.'라든가 '나는 ~~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표현을 써서 어떤 주장이 누구의 의사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5)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피해야 한다. 상당수의 논술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례들이 천편일률적이고, 일반 상식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논술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경우가 많다. 구태의연한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핵심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서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시간적 순서나 역사적 순서에 따라 글을 전개하지 말고, 논리적 순서에 따라 글을 전개해야 한다. 즉 주장이나 자신의 아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의 논술은 좋은 논술이 될 수 없다. 글의 순서를 짤 때는 '문제 제기 - 원인 분석 - 대안 제시 - 근거 제시'의 순서에 입각하여 글을 쓰고, 논거 없이 주장만 나열하는 글쓰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7) 수식어의 위치에 유의하고 가능한 한 수식어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8) 논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가령 '~인지도 모르겠다' 라든가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표현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내용의 표현이 너무 극단적일 필요는 없지만 표현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

9) 지나치게 긴 문장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주어가 무엇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긴 문장은 쓰지 말아야 한다.

10) 시간 배분에 유의해야 한다. 잘 아는 문제부터 먼저 쓰되,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나머지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11) 원고지 사용법을 지키고 글씨를 깨끗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12) 지나치게 과격할 결론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결론에 구애받지 말고 논리적으로 일관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한자를 섞어 쓰라는 경우가 아니면 한자를 되도록 쓰지 않는다.

14) 지시어, 접속사, 연결어미, 조사 등의 사용법에 유의한다.

논술문 작성의 능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표현력, 문법, 문장력 등과 같이 국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능력, 둘째,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셋째,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전개하고 논증하는 논증력의 능력이 그것이다. 이 세가지 요소 중에서 세 번째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3. 논술문의 유형과 작성법

논술문은 일반적으로 단독 과제형, 자료 제시형, 완성형, 요약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앞으로 새로운 유형이 개발된다고 해도 결국 이 네가지 유형을 조금씩 변형한 문제가 될 것이다. 각 문제의 유형의 특징과 그에 따른 작성법을 살펴본다.

1) 단독 과제형

단독 과제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논술의 소재만 주어지는 형태로,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각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에 대해 의견이나 주장을 밝히라, 논술하라, 논하라, 비판하라, 제시하라” 등의 형식을 취한다. 40)

단독 과제형은 논리적 사고력과 그 표현력 측정이 중심이므로, 글의 구성과 전개 과정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특히 서론 - 본론 - 결론의 3단 구성법과 그 변형들에 유의하고, 각 단락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또 개요의 작성과 그 활용을 연습을 통하여 확실히 익혀야 하며,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글의 기술 방법을 정하여 제한된 자수에 유의하면서 진술해야 한다.

단독 과제형 논술문을 작성하는 순서는 우선 주어진 문제의 내용이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글의 제목을 설정하고 자신의 입장이 드러나도록

40) 정남구 외(1996), 앞의 책, p.15.

주제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일단 주제가 설정되면 주제를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 분류, 정리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글의 전개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주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의할 점은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다. 너무 광범위하게 자료를 찾다 보면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의 조건에 한정하여 글의 자료를 찾아야 한다. 다음은 세부 내용을 선정하여 개요를 작성하고 글을 쓰도록 한다.

단독 과제형의 논술문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두 쓰기이다. 특히 제한 자수가 보통 600~1,200자로 짧기 때문에 서두에서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지 말고 내용의 범위를 좁게 잡아 날카롭게 핵심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 본론을 쓸 때에는 개요에 충실하면서, 추상적인 진술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결론은 맨 처음 설정한 주제를 ‘주제문’으로 완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명료해서 좋다.⁴¹⁾

2) 자료 제시형

자료 제시형은 자료를 제시하여 먼저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개진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⁴²⁾ 자료제시형은 어떤 내용의 자료가 제시되느냐에 따라 단순 지문 제시형, 논쟁 유도형, 통계 제시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⁴³⁾

(1) 단순 지문 제시형

단순 지문 제시형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글을 제시해 주고, 그 자료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자신의 견해를 논하는 형태의 문제이다. 이는 논술 시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과 자신의 명확한 견해가 요구된다. 단순 지문 제시형 문제의 논술문 작성 순서는 먼저 제목을 정하고 자신의 입장이 드러나도록 주제문을 작성한 후, 논술의 범위와 방향을 정하고 주제를 효과적으

41) 충청북도 교육청(1995), 앞의 책, p. 137.

42) 정남구 외(1996), 앞의 책, p. 17.

43) 김홍준(1996), 앞의 논문, p. 60~63.

로 나타내기 위한 글의 전개 방식을 구상하고 제시된 지문이 어떤 문제에 대한 주장을 담은 글이든 단순한 사실 자료든, 제시된 자료를 정확히 분석 이해하여 논술문의 범위와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 논술해야 한다. 그 다음 세부 내용을 선정하여 개요를 작성하고 글쓰기를 하도록 한다.

(2) 논쟁 유도형

논쟁 유도형 문제는 주어진 지문에 대한 찬반 양론 또는 제3의 견해를 묻는 것이어서 일종의 판단력을 측정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지문의 논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자신의 견해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을 종합적이고도 고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논쟁 유도형 문제의 논술문 작성 방법은 주어진 지문을 분석한 후, 지문이 담고 있는 문제 의식을 분명히 파악해서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논거와 적절한 예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해야 한다. 특별히 두 개의 대립된 주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두 주장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난 뒤 자신의 입장을 세운다. 두 주장이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각각을 비판할 논거를 정리하고, 그 중 한 주장을 자신의 입장으로 택했다면 다른 주장을 비판할 논거를 정리한다. 이때 논거를 찾는 방법은, 반대 의견 자체의 논리적 모순이나 반대 의견이 설명할 수 없는 생활상의 실례를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논지를 전개한다.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꺼내려 하지 말고, 제시된 주장들 안에서 최대한 글의 재료를 찾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통계 제시형

통계 제시형 문제는 통계 자료를 제시해 주고 그 자료를 분석한 후 자료 사이의 상호 관계나 일정한 경향성, 향후 추이를 논술하라는 형태의 문제이다. 통계 제시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통계자료의 언어 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대체로 그래프나 표의 형태로 자료가 제시되므로 도표의 특성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볼 수 있는 신문 기사의 통계 및 해설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통계 제시형 문제에서는 우선 주어진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제목과 주제문을 설

정하고, 통계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전체 주제를 서론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본론으로, 전체적인 특징을 결론으로 하여 글을 구성하면 무난하다. 때로는 결론을 문두에 내세우면서 그 근거를 도표 분석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글의 전개 방식으로는 보통 설명 또는 논증의 기술 양식이 사용된다.

3) 완성형

완성형은 논술문의 일부만을 미리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을 채우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본론의 일부를 비워놓고 적절한 논거를 넣어 완성하도록 하는 문제와, 서론, 본론을 제시하고 결론을 완성하도록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서론만 제시하고 나머지를 쓰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단독 과제형에 가깝다. 완성형은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미 써 놓은 미완성 논술문을 보충하여 완성하는 문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그러한 입장에서 논술을 했다면 본론에서는 어떤 논거를 들고,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했을 것인지 잘 생각하여, 논술문의 구성원칙에 맞게 채워 나가야 한다.⁴⁴⁾

완성형 문제에 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시된 지문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완결된 글을 추정해 보고 제시된 글이 완결된 구조에서는 어떤 위치에 속하는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 앞이나 뒤에 올 내용을 작성하라는 문제는 주로 제시된 지문의 논거나 혹은 그 결과로서의 주장을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제시된 지문이 주장으로 이루어졌는지 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우선 살펴서 답안은 그 역으로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중간 단락을 채우는 문제의 경우 비어 있는 부분의 앞 뒤 단락의 상호 관계와 특히 접속어에 유의하여야 한다. 요구하는 답안이, 제시되어 있는 지문과 비교되는 내용인지 혹은 대조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부연하는 내용인지 등도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는 논거와 주장이 아니라, 예시나 정의, 분류나 비교와 같은 설명의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⁴⁵⁾

44) 정남구 외(1996), 앞의 책, p. 21.

45) 김홍준(1996), 앞의 논문, p. 58.

4) 요약형⁴⁶⁾

요약형은 비교적 길이가 긴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주어진 분량으로 압축하여 정리하는 형식의 문제이다. 요약하기의 방법에 따라 써 놓은 글을 요약문이라고 하는데, 요약문을 잘 쓰려면 우선 남의 글을 잘 읽고 정확히 이해하는 독해능력과 핵심적인 내용과 부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이해하고 파악한 내용을 잘 짜서 적절한 표현과 바른 표기로 작성해 내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기존 학문의 연구 성과와 타인의 연구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여 자신의 연구를 위한 밑바탕으로 삼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형 논술 문제는 대체로 주어진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여 주제문을 작성하고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추려 살을 붙여 나가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 그 순서는 우선 글 전체를 통독하여 대강의 줄거리를 파악한 다음 내용의 흐름에 따라 단락을 나누고, 각 단락에서 소주제문을 파악하여 각 단락의 소주제문을 종합하여 글의 전체 주제문을 작성한다. 그 후 글 전체의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글을 이루고 있는 각 단락의 기능과 단락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주요 단락을 중심으로 관계 있는 단락끼리 묶고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한다.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어떤 내용은 살리고 어떤 내용을 삭제하여 어떻게 요약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개요를 작성하고 그 개요에 따라 적절한 표현과 바른 표기로 분량에 맞게 요약문을 작성한다.

4. 논술문의 평가와 활용

논술문에 대한 평가의 방법은 크게 총괄적 평정법과 분석적 평정법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총괄적 평정법은 답안을 요소별로 분석하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채점하는 입장이다. 이 방법은 답안지를 질적으로 보아 채점하고자 할 때, 대인 비교를 통하여 서열을 정하려고 할 때 유용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상, 중, 하' 또는 '탁월, 우수, 보통, 열등, 졸렬' 등과 같이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답안의

46) 성기조(1994), 앞의 책, pp. 167~172.

질(質)이 이 중에서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수험자의 답안지가 매우 다양하여 분석적으로 채점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단지 상호 비교를 목적으로 할 때 많이 사용한다. 분석적 평정법은 채점의 기준을 요소별로 분석해서 채점한 다음 종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총괄적 방법보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입학시험과 같이 신뢰도를 요구하는 평가에서 많이 사용된다. 분석적 방법으로 채점하기 위해서는 채점의 대상인 평가 기준과 요소를 얼마나 잘 선정하는가가 관건이 된다.⁴⁷⁾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술지도가 주로 국어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윤리과의 논술지도에 적합한 평가 기준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국어과의 작문 교과목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을 원용하는 것 바람직할 것이다.

작문 교과에서 제시하는 논술의 평가 기준은 내용, 구성, 표현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그 하위 범주에 내용 면에는 내용의 통일성, 주제의 선명성, 논증의 타당성, 결론의 적절성, 사고력 등으로, 구성 면에는 단락 전개 방식과 글의 논리 구조로, 표현 면은 맞춤법, 띄어쓰기, 적절한 어휘 사용, 문장의 정확성, 응집성, 적절한 문체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⁴⁸⁾ 그러나 윤리과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가치판단 능력, 가치관 확립 여부, 실천의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대체로 윤리과에서는 논술문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과 요소를 논술의 영역에 따라 내용, 논리, 표현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 하위 영역을 내용의 영역에서는 내용 문제의 핵심 파악 여부, 내용의 풍부성, 내용을 조직하고 연계하는 방법의 유연성, 독창적 관점이 나타나는가 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고, 논리의 영역에서는 논리의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 여부, 논리상의 오류 유무, 언어적 논리의 오류 여부, 과도한 일반화나 단정은 없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표현의 영역에서는 글의 기본 조건 준수 여부, 문장의 정확성, 어휘의 풍부함, 상투적 표현 유무 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는 방안을 사용한다.⁴⁹⁾ 그리고 윤리과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논술문이 대학입시의 논술고사처럼 학생의 논술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 결과를 선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 평가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

47) 이삼형(1994), “논술의 평가”,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앞의 책, p. 325.

48) 원진숙(1994), “작문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방법론 연구 -논술문의 지도와 평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 137.

4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5), 앞의 책, pp. 77~78.

용하는 방식보다는 각 항목별로 동등한 점수 배점을 하고 그것이 산술적 합이나 양적인 평균치를 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의 여부를 진단하는 것⁵⁰⁾이므로 내용 40%, 논리 30%, 표현 30%의 비율로 배점한다. 위에서 제시한 영역별 요소를 보다 상세히 하여 평가지를 만들어 보면 <표 1>과 같다.

구분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내 용	문제의 파악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논의하였는가	5	
		문제의 핵심과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는가	5	
	사실의 이해	논의의 대상에 대해 포괄적,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5	
		논의의 대상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5	
	해결의 능력	문제의 성격에 적절한 해결의 방법을 구사하였는가	5	
		문제의 해결에 필요하고 적절한 절차를 갖추었는가	5	
적절성	논술에 필요한 만큼의 창의성과 보편성을 갖추었는가	5		
	결론의 도출과정이 적절하고 타당성과 가치를 지녔는가	5		
논 리	논의의 일관성	논증할 주제가 일관성 있게 서술되었는가	5	
		논증에 쓰인 개념이나 판단이 일관된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가	5	
	논거제시의 적합성	논제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논거들이 적절한가	5	
		논거는 의심할 여지없이 확실한 것인가	5	
	논증방식의 타당성	논증을 위한 추론과정이 적절한가	5	
		논리적인 오류는 없는가	5	
표 현	어휘의 정확 성과 풍부성	사용된 어휘가 정확한가	5	
		어휘가 문맥에 적절하며 풍부한가	5	
	문장의 정확 성과 효율성	어법과 표기법에 맞는 문장으로 표현되었는가	5	
		문장은 의미가 분명하고 문맥에 적절하게 표현되었는가	5	
글의 단위 성과 유기성	개개의 문단은 응집성과 단위성을 갖추었는가	5		
	글 전체는 단계성과 유기성을 적절히 갖추었는가	5		
지도교사 조인				
평 가 점 수		평정점	감 점	최종점수
※ 논제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주제)을 쓴 것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표 1> 논술 평가표

50) 원진숙(1994), 앞의 논문, p. 138.

그렇지만 윤리과에서 논술수업을 하는 목적은 학생들의 논술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갈등사태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능력과 윤리적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을 길러 주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윤리과 수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시한 논술문의 평가 방법은 혹 학생들이 작성한 논술문을 평가하여 성적에 일정 비율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윤리과 논술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작성한 논술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띄어쓰기나 맞춤법 등 문법적 측면이나 어휘 등의 표현 면을 중심으로한 평가를 지양하고 윤리적 문제와 관련한 논술문제에 대하여 문제의 발견과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윤리과 수업이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가 있는가, 합리적인 가치 판단의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는가, 바람직한 가치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 이 외에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할 때는 얼마나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을 통하여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면 된다. 즉,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른 사실과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논거를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는가,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논술문에 대한 평가는 논술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과, 사후에 첨삭지도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논술문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우열을 가리는데 사용되지만 윤리과에서는 평가의 결과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논술문의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 태도를 파악하여 수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의 논술문에서 발견된 바람직하지 못한 윤리적 태도나 잘못된 가치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중 또는 적당한 시기에 토론의 기회나 면담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지도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IV. 논술수업 방안

1. 논술수업의 형태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교수-학습의 과정이다. 여기에서 학습(學習, learning)이란 어떤 활동, 훈련, 관찰과 같은 일정한 경험에 의하여 행동이 영속적이며 진보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며, 교수(教授, teaching)란 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성취하도록 이끌어 가는 과정이고, 수업이란 학습자에게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사-학생간에 이루어지는 계획된 활동이라 할 수 있다.⁵¹⁾ 그래서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업의 진행 과정을 일정한 틀로 정해 놓고 교사들이 참고하게 하는 것이 수업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⁵²⁾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는 전문가들이 연구결과인 수업 모형이나 수업 방법을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수업 내용과 학습 방법에 따라서 여러 수업 모형과 방법은 현실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개방되고 창조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윤리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윤리교과의 교육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논술을 윤리과 수업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과 교육여건 하에서는 논술 위주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논술수업은 첫째, 지식위주의 강의식 수업방법에 비하여 훨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둘째, 매 수업시간마다 그 시간에 수업하는 교과내용과 관련 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과 가치관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적당한 논술 문제를 일일이 제시하여야 하며, 셋째, 논술문의 평가 및 활용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윤리과 수업시수가 절대적으로

51) 이상진(1996), 『신실기교육방법론』, 학문사, pp. 111~112.

52) 차경수(1996), 『현대의 사회과교육』, 학문사, p. 129.

부족하고, 넷째, 윤리과 논술지도와 관련하여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자료가 거의 없으며, 다섯째, 논술수업을 실시할 경우 윤리과 담당 교사는 보통 여러 개의 학급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작성한 논술문에 대하여 사후지도 혹은 첨삭지도에 한계와 과중한 수업부담 등의 이유로 인하여 모든 시간에 논술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논술은 여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절충적 형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논술을 도입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보면 그 방법은 첫째, 현행 교과서 체계가 서로 다른 내용들로 구성된 5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단원의 내용체계와 관련하여 언제 논술을 도입할 것인가, 둘째, 단위시간별로 전개되는 수업 단계와 관련하여 어느 단계에서 논술을 도입할 것인가, 셋째, 논술수업에 있어서는 어떤 모형을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세 가지 면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장단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단원전개에 따른 논술수업의 형태

어느 시기에 논술문제를 투입하여 논술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따른 논술수업의 형태는 먼저 단원의 시작 부분에서 논술문제를 제시하여 논술문을 작성하게 하고 발표,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 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내용에 대한 탐구 혹은 주입식 수업을 진행하는 선 논술수업 형태와 교과내용에 대한 탐구 혹은 주입식 수업을 진행 한 후 단원의 마무리 부분에서 논술문제를 투입하여 논술문을 작성, 발표 토론하도록 하는 후 논술수업 형태, 단원 수업의 중간 단계에서 논술수업을 진행하는 중간 논술수업 형태 등이 있을 수 있다.

선 논술수업 형태는 탐구 혹은 강의식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논술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작성, 발표하게 하므로써 학생들이 학습할 내용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게 되어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할 교과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진단 평가의 기능을 겸하는 수업 형태이다. 윤리과에서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는 주로 대단원의 시작 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고등학교 윤리과 교과서가 대단원별로 개인 윤리, 사회 윤리, 국가 윤리, 윤리 사상, 조국통일의 과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단원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는 논술 문제를 제시하는 데에도 적절할 것이다. 논술수업 후에 학생들이 작성한 논술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결론을 탐구학습의 주제로 삼아 수업을 전개해 나간다면 학생들도 자신들이 제시한 문제이므로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작성한 논술문 중에 나타난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태도에 대해서는 탐구수업의 과정을 통하여 교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후 논술수업 형태는 단원의 교과내용에 대하여 탐구식 혹은 강의식 기법을 통하여 수업을 마무리한 후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형성평가적인 기능이 강한 수업 형태이다. 즉, 탐구식 혹은 주입식 수업 방법을 통하여 학습한 교과내용과 관련된 논술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논술문을 작성, 발표케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의 과정에서 학습한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고, 내용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후 논술수업에서 제시하는 논술문제는 학습한 내용을 종합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학습내용을 내면화하는 방향으로 논술문을 작성하게 한다면 수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중간 논술수업 형태는 단원의 학습내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다가 논술수업에 적당한 내용이거나 교사가 논술수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적절한 논술문제를 제시하여 논술수업을 진행하고, 작성 발표한 내용을 주제로 탐구수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선 논술수업 형태와 후 논술수업 형태의 절충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중간 논술수업 형태를 통하여 그때까지 수업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고, 논술문의 발표·토론과 학생들의 작성한 논술문을 침삭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수업 단계별 실시 방안

일반적으로 도입, 전개, 정리, 평가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수업의 전개과정에 따른 논술수업의 방법으로 수업의 어느 단계에서 논술문제를 투입하고 어떤 방식으로

논술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도입단계는 동기유발(動機誘發, Motivation)의 단계, 개시(開始, Initiation)의 단계, 접근(接近, Approaches)의 단계 또는 방향주기(Orientation)의 단계, 준비(Preparation)의 단계 등을 내포하는 것으로 어떤 교육내용을 전개시킬려고 할 때 되도록 학습자의 자주적 활동에 의해서 다음의 중심적 학습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학습의욕을 환기시키고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시키는 단계이다. 학습 목표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학습이 끝날 때까지의 일체의 활동을 강력히 추진시켜 가는 의욕을 불러 일으켜 학습지도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⁵³⁾가 도입의 단계이다.

도입단계에서 학습동기를 유발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 바로 논술이다. 학습할 내용에 대하여 논술문을 작성해 봄으로써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의욕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도입단계에서 적절한 논술지도의 방법은 학습할 교과내용 중 적당한 내용을 선정하여 논술 문제로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간단히 발표하게 하는 방법,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주어 짤막한 논술문을 쓰게 하고 발표토록 하는 방법, 사전에 논술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여 수업시작 전에 몇 학생의 논술문을 발표하게 하는 방법,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한 논술문 중 교사가 수업의 동기를 유발하기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논술문을 선택하여 그것을 첨삭지도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학습목표로 제시하는 것도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데 적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도입단계는 전체 수업에서 약 5분 정도의 시간만이 배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 다음 수업과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전에 논술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여 논술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전개(Developing)의 단계는 도입단계에서 학습동기가 유발되어 목표가 명확히 인식되고 여기에 따라 세워진 학습계획에 의해서 학습을 진행시켜 가는 학습의 중심적 부분이다. 즉 학습활동은 거의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이 단계를 작업의 단계, 실

53) 이승익(1986), 『교수·학습지도법』, 교육과학사, pp. 125~126.

협의 단계, 연구의 단계 분담수행(分擔遂行)의 단계 등으로 부르며 학습시간의 대부분을 여기에 충당하는 중요한 단계이다.⁵⁴⁾

전개단계에서는 우선 교과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논술 문제를 제시하여 논술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게 하는 방법, 과제물로 제시한 논술문을 제출 받아 수업 내용과 연관시켜 첨삭지도를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전개단계는 전체 수업 시간의 약 70%~80%가 배정되므로 보통 고등학교 수업시간인 50분 중에서 35~40분이 적용된다. 이 경우 약 10분 정도 수업내용에 대하여 주입식 방법 또는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간략한 설명을 한 후 적절한 논술 문제를 20분~30분 정도의 시간에 500~600자 정도의 논술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논술 문제는 교과내용에 따라 상반된 두 입장을 제시하고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고 상대의 주장을 비판하도록 하는 논쟁 유도형을 제시하여 논술문 작성 후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1~2명 정도 발표시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는 것도 적절한 수업방법일 수 있다. 또는 전체 학급을 5~6명씩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 논술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토론을 거쳐 소집단별로 논술문을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소집단 학습의 방법도 적용해볼만 하다.

정리(Culmination)의 단계는 전단계(前段階)에서 학습한 것을 총괄(總括)하고, 조직하고, 결론짓는 총결산(總決算)의 단계로서 학습활동의 최고조이며 종결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줄거리를 요약하여 판서하고 각 조항에 간단한 내용을 붙여 설명하는 단계이다. 요컨대 이 정리의 단계는 학습성과를 개관하여 학습한 내용을 한층 더 명확히 해서 종합하는 단계이다.⁵⁵⁾

정리단계에서는 논술지도를 하는데 가장 적절한 단계이다. 정리단계는 전체 수업 시간 중 5~1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수업시간의 정리단계에서 논술문을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논술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즉 수업의 진행상 전개부분에서는 전체 수업 전개 계획에 따라 강의법, 문답법 등 적절한 수업 방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정리의 단계에서는 수업한 내용에 대한 적절한 논술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여 다음 수업시간까지 논술문을 작성해 오도록 하고 작성한 논술문을 차시에 발표하게 함으로써 수업의 효과

54) 위의 책, p. 129.

55) 위의 책, p. 132.

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발표한 내용을 토론의 주제로 삼아 토론식 수업도 전개할 수 있다. 그리고 발표하지 않은 학생의 논술문을 제출 받아 첨삭지도를 함으로써 논술기능의 신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평가(Evaluation)의 단계는 학습목표로 제시한 내용에 얼마나 도달하였는가 하는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비판의 단계라고도 한다. 즉 학습문제 해결의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학습성과가 있었는가를 측정하는 단계이다.⁵⁶⁾

평가단계에서의 논술은 수업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였는가 하는 형성평가의 방법보다는 일정한 단원의 학습이 끝난 후 목표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총괄평가의 방법으로 논술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것은 최근 종합적 사고력의 증가에 대한 요청과 더불어 객관식 시험문제가 사실적인 지식의 단순한 암기를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교육의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는 반성과 함께 주관식 또는 논술식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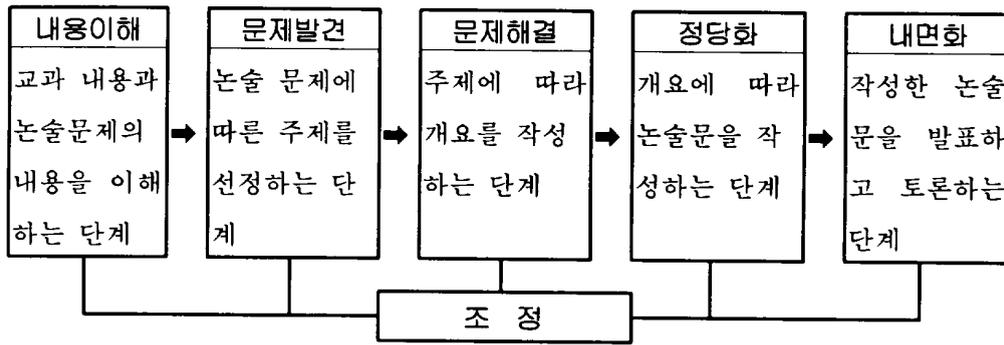
총괄평가의 방법으로 논술을 활용할 경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의 성적에 일정 비율을 반영하여 논술식 수업에 대한 학생들이 관심도를 높이는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논술의 평가는 앞서 살펴보았던 논술의 평가방법에 따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학생들의 논술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논술식 평가를 2~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점을 산출하여 성적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3) 논술수업의 모형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술지도는 첫째, 교과내용과 주어진 논술 문제의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 둘째, 논술 문제에 따른 주제를 설정하는 단계, 셋째, 주제에 따라 논거를 설정하고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 넷째, 작성한 개요에 따라 논술문을 쓰는 단계, 다섯째, 작성한 논술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단계의 다섯 단계와 이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정 부분으로 이러한 논술수업의 과정을 모형화하면 <그림 1>과 같다.

56) 위의 책, p. 133.



<그림 1> 윤리와 논술수업의 단계

내용 이해 단계는 선 논술수업 형태에서는 주어진 문제의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이고, 후 논술수업 형태와 중간 논술수업 형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업한 교과 내용과 관련하여 주어진 논술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이다. 후 논술수업 형태의 경우 이 단계는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많은 수업의 방법과 대동소이하게 진행되는데,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법보다는 학생들의 사고를 확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토의법과 문답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수업 중 토론의 과정에서 교과내용과 관련한 문제 의식을 가졌을 때 논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업내용에 따라 적절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거나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 내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문제 발견의 단계는 자신이 쓰고자 하는 논술문의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주제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요약하여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선 논술수업 형태의 경우는 주어진 문제를 잘 이해하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논술의 주제를 설정하도록 지도하고, 후 논술수업 형태의 경우에는 교과내용에 대한 탐구식 혹은 문답식 수업이 끝난 후 이에 관련된 논술문제를 분석하여 이미 학습한 내용 중에서 주제를 찾도록 지도한다.

문제 해결의 단계는 설정한 주제에 따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적당하고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들을 정리하고 그 논거들을 논리적인 방법에 따라 연결하여 논술문의 큰 흐름을 잡아가는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 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찾아보게 하고, 서론 또는 본론에 적합한 내용인지, 결론 부분에 적당한 부분인지를 커다란 틀 속에 상호 연관지으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지도하는 단계이다.

정당화의 단계는 작성한 개요에 따라 완성된 논술문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자신이 주장이 정확히 드러나도록 논술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수정하거나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화의 단계는 윤리과 논술지도 수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자신의 작성한 논술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반론을 듣거나 첨삭지도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수정하거나 재확인하여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또 이 과정에서는 자신의 논술문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잘못된 표현이나 논리의 비약 등을 발견하게 되므로써 자신의 논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논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만의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각을 접하게 되어 보다 다양한 논거들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며, 집단적 문제 해결의 과정도 접할 수 있다.

조정은 논술문을 쓰는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가 있는가, 앞 뒤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가, 서론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하여 본론 부분에서 적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결론에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안목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정은 자신이 논술문에 대하여 평가자의 입장이 되어 살펴봄으로써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논술수업의 실제

연구자가 실시한 논술수업의 기법은 교과내용에 따른 탐구식 혹은 강의식 수업 후 논술문제를 제시하고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게 논술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일제 논술수업 기법과, 학급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편성하여 주어진 논술문제에 대하여 소집단 토론의 과정을 거쳐 소집단별로 하나의 논술문을 작성하게 하는 소집단 논

술수업 기법 중에서 수업여건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수업 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1) 일제 논술수업

일제 논술수업은 수업 내용과 관련된 논술문제를 제시하고 모든 학생에게 논술문을 작성하게 하는 수업 방식이다.

본 교수-학습 지도안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수업 내용은 고등학교 윤리<교육부(1996), 『고등학교 윤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과서 내용 중 'Ⅱ. 사회와 윤리' 단원 중 '2. 현대 사회의 문제윤리', '2) 환경과 윤리' 부분이다. 논술수업의 형태는 교과내용에 대한 학습을 먼저 하고 논술수업을 하는 후 논술수업 형태이고 학습 단계별로는 정리단계에서 과제로 논술문제를 제시하고 제2차시에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방식이다.

본 교수-학습 지도안은 논술식 수업을 위하여 2차시로 구성하였으며 제1차시에서는 환경과 윤리에 관하여 문답법을 위주로 교과내용을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미리 준비한 논술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여 제2차시에서 각자 작성한 논술문을 발표하게 하고 이에 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수업지도안은 다음과 같다.

(1) 학습 목표

- 오늘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지를 이해한다.
- '생태적 위기'의 근본원인을 지적할 수 있고 그것이 생명존중의 윤리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 설명할 수 있다.
- 우리 민족과 동양의 자연관이 오늘날 환경 오염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는 시사점을 설명할 수 있다.
- 개인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정하고 이를 행동에 옮긴다.

(2) 교수-학습 지도안

- 제 1 차시 -

단 계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지도상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 학습목표 확인	▷ 학습목표를 주지시킨다.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2'	
	내 용 이 해 개	○ 생태학적 위기와 그 원인	▷ 환경오염의 실상에 대하여 발표하게 한다	▶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를 발표한다. - 대기 오염 실태 - 수질 오염 실태 - 토양 오염 실태		
		○ 환경오염의 원인	▷ 환경오염의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발표하게 한다.	▶ 환경오염의 원인을 생각하고 발표한다. - 자동차의 증가 - 생활하수의 증가 - 무분별한 농약, 비료의 사용		
		○ 생태학적 위기	▷ 생태학적 위기에 대해 설명한다. ▶ 생태학적 위기 - 자연에서 모든 생물은 공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적인 평형상태를 이룸. - 자연은 자체의 조절 및 정화능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견지함 -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원을 남용하고, 극심한 공해를 유발함으로써 생태계의 조절능력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삶이 위협받게 되었다.	▶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 생태학적 위기에 대하여 이해한다.		
		○ 환경오염의 원인	▶ 환경오염의 원인 • 근대 서구인들이 지닌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 -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녔으며,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 - 자연과 인간의 분리, 정복 지향적 인간관 • 생태학적 순환과정에 대한 인간의 무지 - 무분별한 산업화, 도시화를 최상의 가치로 삼아 과학기술을 남용함	▶ 환경오염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다.		

전 내 용 이 해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의 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의 실상을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보여준다 - 대기오염: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현상, - 수질오염: 공장폐수, 생활하수 - 삼림지역의 감소: 목축지의 증가 및 벌목 - 생물종의 감소 및 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OHP, 실물 환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 위기의 극복은 인간의 내면 세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환경오염의 극복을 위한 윤리적 과제를 발표하게 한다. ▶ 진정한 자연보호의 의미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 위기의 극복을 위한 윤리적 과제를 인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호를 하는데 있어서 생태학적 지식은 왜 필요한가? ▶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호의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참된 인간성 회복이 중요하다. ▶ 생태학적 지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발표한다. - 생태계의 보전 및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자연보호의 기초가 된다. ▶ 생태적 위기의 극복을 위한 과제를 생각하고 발표한다. - 자연과 인간의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연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 자연보호를 위한 인간의 생활태도가 변화해야 한다. - 개인과 사회의 적극적인 자연 보호 실천과 국제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 ▶ 설명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전 용 이 개 해	내 용 이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 지식과 양식을 지님 - 인간과 자연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임 - 모든 생물은 나름대로의 생육권을 지님 ▷ 자연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서구의 인간 중심적 혹은 정복 지향적 자연관에서 조화론적 자연관 견지 ▷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 -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자연파괴나 오염을 형벌로 다스림 ▷ 도가의 전통적 자연관 -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자연에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 - 노자: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法道自然의 의미 설명 ▷ 인간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하며 자연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한다. - 자연보호를 위하여 개인의 실천과 국가 사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이 요청됨을 인식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의 보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 공공재화인 자연을 후손을 위해서도 함부로 훼손하거나 낭비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는다. ▷ 우리 조상들의 자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본받는다. - 텃밭, 가축사육 등을 통한 쓰레기 처리 ▷ 노자의 사상을 이해한다. - 사람은 땅을 법치삼아 어긋나지 않고, 땅은 하늘을 법치삼아 어긋나지 않고, 하늘은 도를 법치삼아 어긋나지 않는다. ▷ 자연보호를 위한 것이 라면 불편하고 힘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생활 태도를 지닌다. 	40'	<p>동서양의 자연관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설명한다</p> <p>지구의 환경을 살리는 길은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데 있음을 주지시켜 생활화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 정리 ▷ 논술문제 제시 ▷ 과제 부여 ▷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 논술을 위한 논술문제를 제시한다. ▷ 논술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과 논술을 쓸 때의 주의 사항을 전달한다. ▷ 논술문은 제시된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음 수업 시간까지 작성하도록 과제를 부여한다. ▷ 다음시간 수업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학습 내용을 상기하여 확인한다. ▷ 논술문제를 확인한다. ▷ 논술문 작성을 위한 준비를 한다. 	8'

- 제 2 차시 -

단계	논술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시간	지도상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입	정당화	○ 전시학습 확인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전시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 생태적 위기 - 환경오염의 원인 -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방안	▶ 전시학습 내용을 상기한다.		OHP, 실물 환등기
		○ 과제물 확인	▷ 과제로 제시한 논술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 각자 작성한 논술문을 확인받는다.		
		○ 논술문 발표	▷ 논술문을 확인하고 4~5명 정도 발표하게 한다.	▶ 논술문을 발표한다.		
		○ 토론	▷ 발표한 논술문에 대하여 토론을 유도한다.	▶ 자신의 견해와 비교하여 토론한다.		교사는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가끔적 토론 내용에 간섭하지 않는다.
전개	내면화	○ 논술문 제출	▷ 각자의 논술문을 제출하도록 한다.	▶ 논술문을 제출한다.		
		○ 학습 정리	▷ 토론 내용을 종합하여 마무리하고 환경 보전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논술 및 토론을 통하여 얻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3) 수업 결과 분석

이처럼 모든 학생에게 논술문을 쓰도록 하는 일제 논술식 수업을 실시해 본 결과 처음에 의도했던 것 만큼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들이 논술에 대하여 사전 지식이 부족하였고, 논술수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였으며,

② 무엇보다도 시간의 제약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윤리수업이 일주일에 1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논술수업을 위한 충분한 수업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논술수업은 주로 대단원의 마무리에서 실시하였다.

③ 학급 학생수가 50명 내외로 논술수업을 하기에는 적당치 않았다. 한시간의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작성한 논술문을 발표하게 할 경우 4~5명의 학생이 발표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토론을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 대다수의 학생들의 발표 기회가 없어서 논술문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학생도 있었다.

④ 논술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제출한 논술문을 교사 한 사람이 읽고 첨삭 지도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철저한 첨삭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자가 재직하는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50명 내외의 9학급이므로 한 학년 전체 약 4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제출한 논술문을 한사람의 교사가 일일이 첨삭 지도를 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일제 논술수업에서 학생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논술문 중에 토론에 적당한 내용을 골라 차후 수업에서 발표하게 하고 이를 토론주제로 삼아 토론식 수업을 전개하기도 하였고, 좋은 평가를 받은 논술문을 인쇄하여 전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모범 논술문으로 읽게 하고 보다 훌륭한 논술문이 될 수 있도록 전 학생과 함께 첨삭지도를 하므로써 학생들의 논술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또 윤리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의 논술문에 대해서는 토론 주제로 삼아 토론한다든가 첨삭지도를 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를 지적하고 올바른 가치를 일깨워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정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바람직한 가치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하였다.

2) 소집단 논술수업

소집단 논술수업은 소집단 학습 모형을 응용한 것으로, 학급 학생들을 6~8명씩 5~7개의 소집단으로 나누고 소집단별로 토론 과정을 거친 후 논술문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소집단 논술수업을 통하여 논술능력이 모자라는 학생들이 소집단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논술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며, 논술능력이 우수한 학생도 논술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 결손을 발견하고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소집단 토론의 과정에서 학생 각자는 개인마다 뛰어난 측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학생 서로간에 그러한 능력의 인정을 통하여 학생 모두에게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취감의 경험은 긍정적 자아개념 및 정의적 특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⁵⁷⁾

소집단 논술수업도 적절한 단원을 2차시로 구성하여 1차시에는 교과내용을 문답법과 토의법을 위주로 학습활동을 하고 적절한 논술문제를 제시하여 소집단별로 토론의 과정을 거쳐 논술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2차시에는 소집단별로 작성한 논술문을 TP자료로 제작하여 발표하고, 발표한 내용에 대한 토론과 잘못된 표현이나 적절하지 못한 내용 등에 대한 첨삭지도를 하였다.

본 교수-학습 지도안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수업 내용은 고등학교 국민윤리<교육부(1995), 『고등학교 국민윤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과서 내용 중 'Ⅱ. 사회와 윤리' 단원 중 '1. 현대 사회의 윤리적 상황', '2)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 부분이다.

(1) 수업 목표

-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문제점들을 안다.
 - 과학적 지식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왜 반성적 지혜를 갖춰야 하는지의 이유를 말할 수 있다.
 - 전통적 동양의 지혜가 왜 현대 산업 사회에서도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자세를 가진다.
 -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윤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57) 박성익(1987), 『수업방법탐구』, 교육과학사, p. 270.

(2) 수업 지도안

- 제 1 차시 -

단 계	논술 단계	학 습 내 용	교 수 - 학 습 활 동		시 간	지도상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 전시학습 확인	▶ 전시학습 내용을 질문한다. - 과학 기술 발달의 혜택은? -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은? ▶ 학습목표를 주지시킨다.	▶ 전시학습 내용을 상기하여 대답한다. - 물질적 풍요와 편리 - 공업화, 정보화, 대중화, 전통과의 단절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5'	
		○ 학습목표 인지				
내 용		○ 과학 기술 발달의 역기능	▶ 과학 기술 발달이 지구촌 안위에 미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발표한다. - 자원고갈과 인구문제 - 환경오염과 공해문제 - 핵전쟁의 위협	35'	학생들의 자유스러운 토론을 유도하고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한다.
		○ 대량생산 체제의 역기능	▶ 대량 생산 체제로 인한 윤리적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한다. • 신속화 • 기계화 • 자동화 • 물량화 • 규격화 • 대중화	▶ 설명을 듣고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를 인식한다. - 스트레스와 질병의 상호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 이데올로기의 역기능을 생각하고 토론한다. - 유행 심리에 대해 토론한다.		
개 해		○ 과학 기술에 대한 태도	▶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에 대처하는 태도를 비교 설명한다. • 무지한 태도 • 비관적 태도 • 낙관적 태도 • 반항적 태도 • 적극적 수용의 태도	▶ 설명을 듣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토론한다.	35'	동·서양의 인간관, 자연관을 비교 설명한다.
		○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	▶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토론하게 한다. • 탈 산업사회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 동양 사상의 교훈 - 유학의 人心即道心 - 도가의 無爲自然 - 불교의 色即是空 空即是色	▶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는다		

정	문	○ 논술수업 준비	▷ 다음 시간 논술 수업을 위하여 소집단을 편성한다.	▷ 논술수업을 위한 준비를 한다. -6~8명씩 소집단을 형성하고 소집단끼리 책상을 마주하고 앉는다. -소집단의 명칭, 대표집필위원을 선정한다.	10'	학생들 스스로 자유롭게 소집단을 편성하도록 한다. 논술 문제는 본 논문 부록에 제시된 논술문제 중 수업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였음
	제	○ 논술문제 제시	▷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세에 관련한 논술문제를 제시한다.	▷ 제시된 논술문제중에서 각 소집단별로 주제를 선정한다.		
리	발	○ 과제 부여	▷ 선정된 주제에 따라 소집단별로 논술문을 작성하고 제출토록 과제를 부여한다.	▷ 선정된 주제에 따라 소집단 토론을 거쳐 논술문을 작성, 제출한다.		
	견	○ 수업 정리 및 차시예고	▷ 수업내용을 요약·정리하고 다음 수업방법을 설명한다. -논술문의 발표 및 토론	▷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한다.		

- 제2차시 -

단	논술	학습	교 수 - 학 습 활 동		시	지도상	
			교 사	학 생			간
도	입	정	○ 전시학습 확인	▷ 전시학습 내용을 질문한다. · 과학 기술 발달의 역기능은?	▷ 전시학습 내용을 상기하여 대답한다. -자원고갈과 인구문제 -환경오염과 공해문제 -핵전쟁의 위협	5'	
			○ 학습목표 인지	▷ 학습목표를 주지시킨다.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전	개	내	○ 소집단 확인	▷ 지난 시간에 편성한 소집단별로 앉게 한다.	▷ 자신의 소집단을 확인하고 모여 앉는다.	40'	·소집단별 논술문을 TP자료로 제작하여 활용한다. ·소집단 발표 내용에 관한 토론이 끝나면 종합적인 첨삭지도를 한다.
			○ 논술문 발표	▷ 소집단 별로 작성한 논술문을 발표하게 한다.	▷ 논술문을 발표하고 듣는다.		
정	리	화	○ 토론 및 첨삭 지도	▷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 산업사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게 한다.	▷ 다른 소집단의 발표 내용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토론한다.	5'	
			○ 수업 정리 및 차시예고	▷ 학생들이 발표한 논술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 차시 수업 주제 및 학습 목표를 소개한다.	▷ 차시 수업 주제 및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		

(3) 수업 결과 분석

소집단별 논술수업은 일제 논술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우선 소집단을 편성하여 논술문을 쓰게 하므로써 논술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했던 학생들이 논술에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논술능력이 향상되었다. 또 한 학급당 5~7편 정도의 논술문이 작성되므로 보다 깊이 있는 첨삭 지도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 스스로가 첨삭지도를 하고 다른 학생들의 첨삭지도를 받음으로써 논술 내용의 구성이나 표현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집단 논술수업도 문제점은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점은 논술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직접 논술문을 작성하지 않게 되므로 해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개요 작성이나 논술문 작성의 과정에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소집단 구성원 중에서 논술에 경험이 많은 학생이 혼자서 논술을 독점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났다.

그리고 아적인 학생들이 토론식 수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인지 토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소집단별 토론의 경우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거나 의견 대립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민주적인 방법이 아닌, 예를 들면 가위 바위 보나 제비뽑기, 무조건 다수결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학생은 그 다음 과정부터는 아예 참가하지 않거나 토론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또 각 소집단별 발표후 토론 과정에서는 장난끼어린 질문이나 엉뚱한 내용의 첨삭지도를 하여 토론의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도 있었다.

V. 결 론

고등학교 윤리과는 한국인으로서 바람직한 윤리적 인식체계와 이념적 시각을 정립하고 건전한 가치판단 능력과 실천의지를 기르게 하기 위한 교과이며 우리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윤리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의지를 기르고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교과이다. 이러한 윤리과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윤리과 교육은 학력위주의 사회적 풍토와 물질 만능주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 여건과 더불어 교과목표가 비교적 추상적이고 해설위주로 되어 있어 가치·태도 등 정의적 영역에 대한 탐구 학습을 어렵게 하여 지식 전달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 윤리과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윤리과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업의 개선 방법으로 논술을 윤리과 수업에 도입하였다.

논술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합당한 근거에 바탕하여 말이나 글로써 논하고 진술하여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행위이며, 논술문은 이것을 글의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다. 논술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종합적 사고의 기능, 논리적 사고의 기능, 비판적 사고의 기능 등을 갖는다.

이와 같은 논술은 윤리과의 성격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 첫째, 지식 통합성에서 학제적 성격을 지닌 윤리과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둘째, 전인적 성격에서 전인적 인간을 기르고자 하는 윤리과의 목표와 일치하고 있으며, 셋째, 능동적인 성격은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윤리과의 성격과 일맥 상통하고, 넷째, 고등 정신성은 현실에서 부딪치는 여러 갈등상황에서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하는 윤리과의 지도 방법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윤리과에서 논술을 지도하는 것은 윤리과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논술문은 일반적으로 단독 과제형, 자료 제시형, 완성형, 요약형 등이 있으며, 논술문은 먼저 주어진 논제에 따라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를 뒷받침 할 논거들을 정리하여 개요를 작성하고, 작성된 개요에 따라 정확한 표현으로 글을 쓰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윤리과에서 논술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문법적 측면이나 표현 면에 대한 평가보다는 학생들의 가지고 있는 윤리적 가치나 태도를 파악하여 수업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과에서 논술을 도입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단원 전개에 따라 먼저 논술을 하고 탐구 혹은 강의식 수업을 하는 선 논술수업 형태, 탐구 혹은 강의식 수업을 먼저하고 단원의 마무리에서 논술을 하는 후 논술수업 형태, 단원의 중간에서 논술을 하는 중간 논술수업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수업 전개와 관련하여서는 도입, 전개, 정리, 평가의 각 단계마다 적당한 형태의 논술을 도입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논술을 도입하여 수업을 하는 과정을 모형화하면 먼저 주어진 문제나 교과내용을 이해하는 내용 이해 단계, 논술문제에 따른 주제를 선정하는 문제 발견 단계, 주제에 따라 개요를 작성하는 문제 해결 단계, 작성한 개요에 따라 논술문을 쓰는 정당화 단계, 작성한 논술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내면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연구자는 모든 학생들에게 논술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일제 논술수업 기법과 학급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편성하여 소집단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 소집단별로 하나의 논술문을 작성하게 하는 소집단 논술수업 기법을 활용하여 논술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또한 논술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논술문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공포감을 해소하고 자신감 넘치는 문장을 구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자신들의 발표한 논술문을 바탕으로 토론수업을 진행할 때는 조리있게 발표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논술문을 평가하고 첨삭지도를 하므로써 학생들의 사고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수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실제로 논술을 도입하여 수업을 실시한 결과 보다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선 논술수업의 형태는 도입 단계에서 일제 논술수업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선 논술수업의 형태와 도입단계에서는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

고 학생들의 사고 수준을 측정하는 진단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논술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학습할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중간 논술수업 형태는 전개단계에서 일제 논술수업 기법이나 소집단 논술수업의 기법 중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제 논술수업 기법을 활용할 경우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전체 학생의 논술문을 평가하는 데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고, 소집단 논술수업 기법을 활용할 경우 소집단을 구성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 논술문을 쓰는 데 수업의 많은 시간을 소비해 버릴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배분에 유의해야 한다. 후 논술수업 기법은 주로 정리단계에서 소집단 논술수업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리단계는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단계이므로 소집단 토론의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단계에서는 학습목표 도달 정도를 측정하는 단계이므로 일제 논술수업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논술문을 평가하고 성적에 반영하는 것도 논술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논술수업 형태 중 단원전개에 따른 논술수업의 형태로는 후 논술수업이, 수업단계별 논술수업은 정리단계에서, 논술수업의 기법으로는 소집단 논술수업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윤리과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논술 주제를 학습한 교과내용에서 찾아 논술문을 쓰게 하고 발표, 토론한다면 학습내용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훌륭한 논술문을 쓰기 위해서는 논거를 찾는 과정에서 주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집단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집단 구성원 간에 상호 학습 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윤리과 논술 수업에서 제시하는 논술문의 형태는 완성형이나 요약형 보다는 단독 과제형이나 자료 제시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윤리과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목적이 학생들의 작문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의지를 기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료 제시형 중 도덕적 가치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 상대의 주장을 비판하게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도록 하는 논쟁 유도형 문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윤리과 수업에 적당한 논술문을 찾기 어려울 경우 교과서의 연구문제

를 적당히 변형하여 단독 과제형으로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윤리과 수업의 개선 방법으로 논술수업이 제 제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논술이 특정 교과 하위 영역이라거나 입시를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하는 교사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논술은 범교과적이며, 각 교과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글로 나타낸 것이라는 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⁵⁸⁾

둘째, 윤리과 교사들이 논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논술지도를 실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논술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며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였을 때 그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의지를 기르게 한다는 윤리과의 지도목표와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셋째, 윤리과 논술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문제의 개발을 위해서는 어느 한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공동 연구 등을 통하여 윤리과 수업에 적합한 다양한 논술문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윤리과에서 논술수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문제점 개선이 이루어 진다면 논술은 윤리과 수업의 한 모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윤리과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논술수업과 같이 수업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보다 많은 연구와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윤리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58) 이삼형(1994), 앞의 논문, pp. 317~318.

참 고 문 헌

〈단행본〉

- 한국철학회 논리논술대학원 편(1997), 『논술교육정론』, 한국철학회 논리논술 대학원.
- 한국국민윤리학회 편(1987), 『국민윤리학개론』, 형설출판사.
- 교육부(1996) 『고등학교 윤리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1995),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안귀덕 외(1993), 『현대 한국사회의 윤리문제와 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대전직할시 교육연구원(1994), 『논술지도의 이론과 실제』, 대전직할시 교육연구원.
- 충청북도교육청(1995), 『논술지도의 이론과 실제』,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자료 95-11호.
- 성기조(1994), 『논술』, 도서출판 학영사.
- 성낙수 편(1996), 『고교생이 알아야 할 논술 1, 2』, 신원문화사.
- 정남구 외(1995), 『논술 포커스 1, 2, 3』, 퇴설당.
- 김광휘 · 김진관(1995) 『홀로서기 논술』, 대학진학사.
- 파워테스트 프로그램 기획팀 편(1995), 『논술 방정식』, 주식회사 신우.
- 천한신 외(1995), 『디딤돌 논술』, 도서출판 디딤돌.
- 김창호(1996), 『홀로서기 논술 길잡이』, 문학수첩.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1995), 『논술, 출제와 평가의 실제』, 한샘출판사.
- 정제한(1996), 『서른개의 논술고개』, 기획출판 거름.
- 박성익(1987), 『수업방법탐구』, 교육과학사.
- 예상진(1996), 『신실기교육방법론』, 학문사.
- 차경수(1996), 『현대의 사회과교육』, 학문사.
- 이승익(1986), 『교수 · 학습지도법』, 교육과학사.

〈논문〉

- 조남국 외(1995),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과정의 이론적 탐색(I)”,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제6호.
- 윤건영(1992), “「윤리」과 교육내용 체계화에 관한 연구”, 한국 도덕·국민윤리과 교육학회, 『도덕·국민윤리과교육』, 제3호.
- 오석종 외(1995), “고등학교 윤리과 교육과정의 이론적 탐색(II)”,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제6호.
- 김희식(1982), “국민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18집, 공주교육대학.
- 조광제(1995), “논술교육의 의의와 논술지도의 실제”, 영남철학회소식, 통권 제12호.
- 김수익(1982), “화가가 본 도덕교육”, 『경희교육논총』, 제4집,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상대(1994), “논술지도의 교육적 의의”,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논술지도의 실제』.
- 박영목(1994), “논술지도의 원리와 절차”,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논술지도의 실제』.
- 김대행(1994), “논술지도의 발전적 방향”,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논술지도의 실제』.
- 이삼형(1994), “논술의 평가”,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논술지도의 실제』.
- 원진숙(1994), “작문교육의 이론적 기초와 방법론 연구 -논술문의 지도와 평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황금석(1995), “고등학생 논술실기에 나타난 문제점과 그 원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용봉(1994), “현행 고등학교 윤리교육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인명(1996), “고등학교 윤리교과서 내용에 관한 분석 연구 - 5·6차 교육과정에서 서양윤리사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오선근(1993), “강원도내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수법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홍준(1996), “논술활동을 통한 가치탐구 수업모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장봉환(1996), “열린 논술, 자유로운 논술을 위하여”, 읽기 자료집 「자유인을 위한 글읽기」를 활용한 논술지도 사례, 포항제철고등학교.

〈기타〉

한겨레신문 1997. 1. 14.

한국일보 “논술고사의 실제” 시리즈.



<Summary>

A Study On The Discourse Teaching Approach Through Ethics*

Jin, Gyu-Seob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Bang-Ju

Ethics in high school is a subject to take a triangular position in desirable ethics consciousness and ideological and spiritual education of Korean people and to develop a sound ability of judgment of value and executive faculty.

In this study,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recent ethics education and to achieve the aim of ethics subject, the discourse approach was introduced as a way of development of ethics.

A discourse is a kind of deed to persuade people to behave themselves through reasonable words or speech on the basis of proper proofs. It develops the ability of quiz solving and synthetic, logical and critical thinking faculty. I find that the learning integration in discourse is in accord with interdisciplinary character in ethics.

In discourse,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the aim of ethics and education for the whole man, the characteristic of ethics and spontaneit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7.

the teaching method of ethics and advanced spirit of judgment of value. Therefore, it is no wonder that discourse can be taught through ethics.

And discourse through ethics can be taught by various methods. According to units, we can approach the teaching forms of pre-discourse, post-discourse and intermediate- discourse. For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ethod, we can apply suitable discourse materials to each step in ethics classes.

The teaching procedure of ethics through discourse consists of comprehension, problem-finding, problem-finding, justifying and internalization. So the discourse should be evaluated by the students' ethical value and manners instead of grammatical aspect.

In this study, post-discourse approach was performed. Sometimes, I let students make discourse compositions in the adjustment step. Other times, I divided the class into several small groups and helped them make compositions through discussion.

In conclusion, I have found that they related to each other more than ever and the teaching plan was helpful for the development of students' logical and critical thinking faculty. The post-discourse approach is effective in discourse teaching through ethics and it is desirable to make use of small group discourse method in the course of adjustment step.

부록 - 윤리 교과서에 따른 논술문제 모음*

I. 인간과 윤리

1. 인간의 삶과 윤리

1) 인간의 특성

- 아래 글을 읽고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약술한 후,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 교육적 현실과 관련지어 위의 두 가지 교육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강조돼야 할 지를 자신의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논술 하라.

파스칼이 “인간은 물리적으로 우주에 포함된 말할 수 없이 작은 존재이지만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한에서 우주를 자기 속에 포함시킨다”라고 했던 바와 같이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다른 동물과 똑같이 자연에 속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성적 존재로서 자연을 초월한다.

동물적 인간은 생물학적 존속과 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자연에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한 힘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정신적 인간은 심성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동물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자연현상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자연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 기술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성적 초월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연적 동물적 욕망으로 채울 수 없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라는 말은 인간이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정신적 존재임을 간략하고도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다.

인간이 초월적 존재라는 것은 모든 사물과 행동을 유용 무용의 공리적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옳고 그름의 내재적 가치의 입장에서 봐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자연적 존재로서 빵이 필요하고 초월적 존재로서 도덕성이 필요하다면, 전자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기능적 개발과 교육, 그리고 동시에 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신 인성교육은 다 같이 필수적이다.

* 여기에 제시된 논술문제의 대부분은 그동안 대학입시에서 출제되었던 논술 문제들과 컴퓨터 통신, 시중에 나와 있는 논술참고서, 일간신문의 논술 관련 연재물의 문제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약간 변형하였음을 밝힌다. 여기에 인용한 논술참고서들은 앞의 참고 문헌에 제시되었다.

-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은 공간적으로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고립되어 형성될 수 없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줄 보다 나은 미래를 구상하면서 현재를 살아간다. 과거-현재-미래의 이러한 유기적 연결성을 논의의 축으로 하여 오늘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라.

2) 다양한 인간관

-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항상 논쟁거리가 되어왔던 문제이다. 특히 동양에서는 인성 논쟁이 맹자와 순자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들의 대표적인 학설인 성선설과 성악설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 인간의 심성을 바라보는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3) 인간의 삶과 윤리의 필요성

- 다음 글을 읽고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의 논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논술하라.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누구나 자기 몫을 먼저 생각한다. 남을 위한다는 행위에서도 자기 만족을 생각한다.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모성애에도 이기심은 있다. 보상의 심리라든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이기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서로 싸우지 않고 협조하며 잘 살아간다. 이른바 각자의 이익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이익 조화론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든 사자나 늑대는 도덕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서로 죽이지 않고 잘 살아간다. 따라서 모든 것은 자연의 질서에 맡기면 된다. 남을 위하는 자비나 사랑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없어도 된다.

- 노(魯)나라에 미생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날 그는 한 아가씨와 다리 밑에서 밀회를 즐기자고 약속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아가씨는 오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 큰 비가 내려서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생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교각을 짝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미생은 결국 익사하고 말았다. 이러한 미생의 행위는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신의(信義)라는 윤리적 관점을 중점에 두고 자신의 견해를 쓰라.

2. 자아 실현과 인격 완성

1) 삶의 의미와 목적

-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
-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제나 정치 분야 등에서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된 이후에, 어떠한 삶이 보람 있고 풍요로운 삶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필요성은 기성 세대보다 청소년에게 더욱 절실하다고 말한다. 이들이 처한 환경이나 문화적 배경, 생활방식 등이 '삶의 질'과는 너무나 거리가 크다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삶의 질' 향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성취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술하라.

2) 자아의 발견과 실현

-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보면 서로간에 여러 가지 정리가 생기고, 종종 그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특히 좋아하는 마음과 고마운 뜻을 정성어린 자그만 물건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진실된 선물은 주고받는 사람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거나 그릇된 선물은 오히려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선물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있는가 살피면서 '올바른 선물 문화'에 관해 논술하라.
- 요즘 열린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열린교육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열린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우리 교육이 닫힌교육의 성격을 적지 않게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열린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관지어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이라는 주제로 논술하라. 단 현실 비판보다는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시킬 것.
- 행복의 조건에 대한 아래의 두 입장을 비교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입장 <가> : 행복은 최소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예컨데 건강, 재산 등)을 갖추어야 얻어질 수 있다.

입장 <나> :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조건, 즉 마음의 안정과 풍요에 있다.

3) 인격 완성을 위한 노력

- 민족문화나 민족문학 논의에서 쟁점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전통」과 「현실」이라는 문제이다. 전통을 중시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은 과거 그 나라의 문화유산을 발굴해 보존·전수하는 것이 민족문화 창달의 중요 과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현재 그 나라 국민이 처한 현실과 요구를 담아내는 문화가 민족문화의 본령이라고 주장한다. 이 두 주장 가운데 하나를 택해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논술문을 쓰라.

3. 인생에서의 청소년기

1) 청소년기의 특징

- 청소년의 가출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라.
- 우리는 이따금 신세대 혹은 X세대라는 말을 접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신세대에게는 그들 세대만이 지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성세대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세대 혹은 X세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상업적 목적 등에 의해 탄생된 인위적 용어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우리사회에 신세대 혹은 X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이유와 그 용어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 근래 들어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과보호하여 신체나 정신 건강은 물론 성격 형성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더구나 이러한 과보호가 가정 단위의 이기주의와 결탁하여 더욱 심화해 가는 현상을 빛는다. 자녀 세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요즈음 자녀 과보호 문제를 논술하라.

2) 청소년기의 윤리적 과제

- 아래에 제시된, 젊은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세 가지 비판에 대해 젊은 세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논박하는 글을 쓰라.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말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서든 들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X세대로 지칭되는 젊은이들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성세대는 그들 젊은 세대를 불신하고 비판하는 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젊은 세대는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젊은 세대는 대중 매체를 통해 밀려오는 서구의 유행을 비판없이 모방한다. 셋째, 젊은 세대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여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 '자아의 형성과 청소년기의 과제'에 관하여 논술하라.

3) 청소년기의 진로 탐색

-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사회 규범에 벗어나는 행동이나, 일탈적인 사고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한 것이다. 우리는 속담이 선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교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모난 돌'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모난 돌'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모난 돌'은 때로는 선각자 혹은 선구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모난 돌'의 긍정적이 측면에 대해 논술하라.
- '취미'는 자기 스스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가지는 주관적인 절대가치의 세계를 바탕으로 한다. 근래에는, 단순히 남는 시간을 좀 더 즐겁고 유익하게 보낸다는 차원을 넘어, 삶의 가치를 이같은 취미 활동에서 본격적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직장이라는 생업 전선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의욕을 재충전함은 물론, 그 자체에서 극대화한 정신과 육체의 축제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들어 인간들의 직업이 단순·전문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여가 시간을 비교적 여유있게 보장해 주는 사회제도와도 깊은 관련을 갖는 듯하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내용들을 중심 소재로 하여, 오늘날 현대인의 취미활동이 갖는 의의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하여 논술하라.

II. 사회와 윤리

1.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징

1)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징

- 텔레비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라.
- 다음 글을 읽고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계 문명과 정신 문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우리는 풍요로운 기계 문명의 시대 속에 살고 있으며 끊임 없이 그 혜택을 입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추구해 온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구 정신이 가져다 준 자연적 귀결이다. 한편, 인간에게는 과학이나 기계가 해결하지 못한 심오한 정신세계가 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의 삶은 무미 건조한 일상의 반복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 최근의 대중문화 현상을 보면, 이른바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사이의 경계선을 긋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고급문화라고 불리는 것들이 내면적으로는 저급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저급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사회의 건강성 추구를 위한 비판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사이의 경계선 긋기는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논술하라.
-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버 스페이스, 즉 가상공간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이버 스페이스에 들어가 정보를 얻거나 여가를 즐기고, 혹은 거기서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이버 스페이스의 활용이 꼭 긍정적으로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스페이스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술하라.

2)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

-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산업 재해나 교통 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자의 발생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자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구체적 이유를 들고, 장애자들을 위해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술하라.

-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들까지도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의 원인을 들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전제를 논하라.
- 다음 글을 읽고 주변에서 발견되는 서구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는 예를 들고, 범람하는 서구문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라.

우리가 배운 세계사의 첫 부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에서 시작된다. 최초의 인류가 그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인류 최초의 4대 문명이 중국, 인도, 중동 그리고 이집트의 강가에서 생겨났다는 것 등이 나온다. 그러다가 별안간 이야기는 유럽으로 건너가고 알렉산더의 정복 대상으로 잠깐 언급되다가 더 이상 세계사에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남미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는가? 그들은 왜 세계사에서 철저히 제외되었는가? 그것은 세계사가 사실은 서양인이 자기 역사를 쓴 것이고, 자기문화의 원류로서 동양을 처음에 약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된다.

- 요즘 과소비 현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소득을 넘는 지출, 계획과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전시형 소비 등을 우리는 과소비라고 부른다. 그런데 과소비 풍조와 그로 인한 문제 발생은 단지 기성세대의 생활방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과소비 풍조는 청소년의 생활방식에서도 적지않게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을 예로 들어 과소비 풍조를 비판한 후, 그것을 극복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술하라.

2. 현대 사회의 생활윤리

1) 가정 생활 윤리

-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다. 가정 윤리는 집단 성원의 여러 윤리 중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그만큼 가정이 지니고 있는 자녀의 사회화 기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핵가족화 현상으로 이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정 생활과 관련지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가족관계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전통적 대가족 제도와 핵가족 제도를 비교해 보고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을 제시하라.
- 전통적으로 문학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갈등의 관계이고, 아버지는 억압의 존재로 부각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 가부장으로서 아버지의 권위와 존엄은 상실되었고, 단순한 가족부양이라는 짐을 진 멸시와 동정의 대상으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회학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은 무엇이며, 바람직한 아버지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술하라.
- 현대사회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공동체 해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공동체 해체 현상 속에는 가족의 해체도 포함된다.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는 가정과 가족을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까지 여긴다고 한다. 무엇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러한 불만과 거부감을 갖게 하는가. 가족 제도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가운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에 대해 논술하라.

2) 직장 생활 윤리

- 일에는 수단으로서의 측면과 목적으로서의 측면이 있다. 이 두 측면과 오늘의 사회상을 염두에 두고 “현대인의 일과 보람”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 현대 산업 사회에서 직업의 특성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직업의 전문화 현상이다. 그래서 일반적보다 전문직에 더 투철한 직업 윤리가 요구된다. 전문직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직업 윤리에 대해 논하라.
- 최근들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례들이 많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빈번히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내국인 못지 않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라 하여 보수 등에서 지나치게 홀대받거나 인권 문제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1996년 7월 현재 10만명을 넘어 국내 임금 노동자의 1%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미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더구나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더욱 커지는 추세라면 우리는 이들의 인권을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라는 측면이나 국가적인 의무감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살피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 대책 문제'에 관해 논술하라.

3) 시민 생활 윤리

- 오늘날 과외와 같은 사교육은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과외교육이 가져오는 병폐는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인성교육의 측면에 있어서도 큰 병폐를 가져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과외공부가 없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교육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과외교육 문제의 발생원인과 그것을 근절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하라.
- 일본의 학교에서 '이지메'라 하여 약하거나 결함이 있는 한 학생을 지목해 모든 사람이 괴롭히는 일이 있고, 그것을 당한 학생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경우가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학교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어 충격을 전해 준다. 심장병을 앓는 학생을 여러명이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경우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급우를 견디다 못해 살해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최근에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가. 혹은 전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있어 온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른바 '사디즘'이라는 가학 본능이 인간에게 내재해 있어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나 자신이 그같은 괴롭힘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를 바꾸어 생각한다면 있기 어려운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그 원인과 처방을 진단해 논술해 보라.

4) 문화·예술 생활 윤리

- 예술과 도덕의 관계를 보는 눈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예술은 도덕적 판단에 따라야 하고 도덕적으로 선(善)한 것만이 미적(美的)'이라는 절대적 도덕주의의 입장과, '도덕적 판단과 예술적 미(美)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예술 지상주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두 입장을 비판하고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라.
- 예술 작품을 이해하고 비평하는 방식은 크게 내재적인 방식과 외재적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내재적 방식은 이른바 작품 그 자체만을 중시하며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이고, 외재적인 방식은 작가의 생애와 작품 창작 당시의 사회·역사적 상황 등 작품 외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 두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그것을 지지하는 글을 쓰라.

- 다음에서 제시한 두 가지 견해 중 한 견해를 택하여 그것의 정당성을 논하고 다른 한 견해를 비판하거나, 또는 제3의 견해를 제시하는 글을 쓰라.

예술은 미에 대한 예술가의 순수한 관심에 의존하는 것으로 예술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술이 예술로서의 순수함을 잃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단지 선전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예술가는 사회 현실에 관여하지 않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예술가는 사회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술가도 한 명의 사회인이며 예술활동 역시 하나의 사회 활동이라는 점을 들어 사회와 무관한 순수예술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예술가는 사회 현실에 관여하여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종교 생활 윤리

- 진화론은 과학의 한 산물이다. 반면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론은 신앙의 대상이다. 과학과 종교, 이성과 신앙의 관계에 입각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술하라.
- 종교와 사회적 삶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라.
- 어떤 종교 단체의 신도들은 수혈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 그런데 그 종교 단체의 신도인 어머니가 긴급히 수혈을 받지 않으면 안될 자식의 수혈을 거부하고 있다. 의사는 강제이라도 수혈을 하여야 하는가? 또 만약에 수혈을 하지 못하여 아이가 죽게 되었다면 수혈을 거부한 어머니를 처벌할 수 있는가? 처벌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3. 현대 사회의 문제와 윤리

1) 생명 존중과 윤리

- 얼마전 영국의 어느 과학자가 양의 복제에 성공한 것이 발표된 이후, 인간복제의 가능성까지도 논의된 바 있다. 인간을 복제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및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논술하라.
- 의학의 발달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장기 이식을 허용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 글을 참고로 하여 뇌사를 인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어느 한 편에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뇌사(腦死)는 인정되어야 하는가, 인정될 수 없는가?’라는 논쟁은 가까운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집중된 문제이다. 그러나 거듭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뇌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뇌사에 연관된 장기(臟器) 이식의 문제 때문이다.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심장, 간, 안구 등의 이식을 통해 이제까지 불가능했던 환자의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또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의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死刑制度)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생존 및 자유의 확보,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 건전한 국민경제 윤리와 경제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은 한 사람의 생존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므로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폐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라.

2) 환경과 윤리

- 현재 제주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의 한 방법으로 제주의 지하수를 먹는 샘물(생수)로 개발하여 판매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개발과 보존의 측면에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라
- 인간은 자연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다. 갈수록 자연보호가 절실히 요청된다. 특히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과학의 발달과 자연보호의 필요성과 자연보호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논술하라.

- 다음 두 글은 환경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담고 있다. 어느 한 편을 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거나 제3의 견해를 제시하라.

【가】 환경문제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다른 과학 기술에 비해 환경 기술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다. 환경 기술이 발달한다면 방사선 폐기물을 우주선에 실어 지구 밖으로 내다 버릴 수도 있다. 갖가지 오염 물질을 유전공학으로 개발한 미생물로 분해시킬 수도 있다. 한편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러한 자금은 경제성장을 통하지 않고는 조달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경제성장은 계속되어야 한다.

【나】 과학기술로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과학 기술도 전혀 예견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파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도 일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는 해도 결국에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커다란 악영향과 부작용이 발생한다. 경제성장은 인간의 욕구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그 결과 환경파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미래를 낙관하고 경제 성장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회복이 더 중요하다.

- 다음 글은 '그린라운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글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환경 보존'과 '경제 성장' 어느 한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볼 때, 선진국의 일방적인 횡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린라운드에 대한 개발 도상국의 반발을 해소하여,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적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라.

대기 오염, 지구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등은 환경문제가 더 이상 몇몇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준다. 누가 오염을 일으키든, 환경오염은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강력한 환경 보호 기준을 시행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개발 도상국들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의 활동에 대해 그다지 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는 곧바로 상품 가격을 올려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발 도상국의 기업들은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도, 그들이 생산한 상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상품의 수출입을 국제적으로 제한하여 개발도상국들도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성(性)과 윤리

- 그동안 우리사회를 묶고 있던 유교적인 문화환경이 무너짐에 따라 우리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성적인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사회의 한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는 측이 있으나 다른 한 쪽에서는 그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침묵의 목소리'가 높다. 성을 부추기는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자제해야만 하는가. 위의 두가지 문제를 두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하되 만일 지나친 성적노출이 자제되어야만 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인가를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논술하라.
- 아래의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여성은 사회적 지도자, 예컨대 정치가나 기업인으로 대성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결단력이 약하며, 복잡한 사회 현상을 단순화시켜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성은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일 에까지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감정적으로 결정한다.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은 사회적 지도자로서 여성이 가지는 능력의 한계이다.

- 다음 글은 성(性)과 관련된 두 가지 상반되는 '순결관(純潔觀)'을 보여주고 있다. 양쪽의 입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제 3의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단, 순결을 여성에게만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토를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하여 글을 전개할 것)

【A】 남녀 모두가 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순결을 지키는 것은 정신적으로 가장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순결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순결을 잃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이 인격형성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결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B】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육체적 순결보다는 정신적 순결이 더 중요한 것이며, 순결을 잃었을 지라도 삶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순결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실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결은 그 자체가 반드시 사랑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순결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도 될 수 없다.

4) 과학과 윤리

- 다음 제시문을 읽고 과학이 가치 중립적일 수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과학자의 책임과 윤리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 논하라.

오늘날 과학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의 제 양상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심지어 한 분야의 과학 지식을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의 정당성과 전문직으로서의 과학자 윤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어떤 과학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 문제는 과거 핵 개발과 관련해서 대두된 적이 있고, 오늘날 생명과학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 다음 글을 참조하여 “과학과 가치의 관계” 또는 “과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견해를 쓰라.

“과학은 가치와 무관하다. 또는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말은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과학자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나 이론을 얻어 하나의 결론을 내릴 때 거기에는 과학자 개인의 취향이나 주관의 개입될 수 없다는 뜻이고, 둘째는 연구와 실험 과정에서 얻은 하나의 결론, 즉 과학적인 지식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지식일 뿐이지 그 지식 자체가 어떤 사물이나 인간의 행위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려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을 논술하라.
- 다음 글의 내용을 반박(비판)하는 입장에서 한 편의 완성된 논술문을 작성하라.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행복만 가져다 주지 않는다. 과학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환경은 오염되고, 새로운 질병이 유발되며, 무서운 전쟁무기가 개발되어 인류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도의 산업사회는 지나친 경쟁을 불러일으키며, 생활을 분주하게 하고, 정신적 압박감을 가져옴으로써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따라서 현재 수준 이상으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III. 국가와 윤리

1. 국가의 발전과 이념

1) 국가의 본질

- 최근 여당의 몇몇 중진들은 극심한 권력집중에 의해 잇달아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권력의 분산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모순되게도 권력의 집중이 필연적인 대통령중심제 내에서 권력분산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중심제 내에서의 권력분산의 논의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최근 우리가 처해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논술하라.

2) 국가관의 여러 형태

-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지방자치제 실시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대일수록 '지방화'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근간으로 한 '지방화'의 추진이 '세계화'라는 시대적 과제의 성취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논술하라.

3) 국가 발전을 위한 이념적 기초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본질적으로는 신성하여 불가침의 영역에 놓인다. 그러나 소속 사회의 자유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 범위는 소속 사회의 다양한 규범에 의해 조정되는데, 때로는 법에 근거하여 정치 권력 기관 등이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 보자. 승용차를 탈 때 안전띠를 맬 것을 의무화하고, 경찰은 이를 어기면 벌금을 매기고 있다. 안전띠를 안 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데도 국가기관이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는가.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라고 상정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논술하라.

- 다음 글은 '자유(自由), 자율(自律), 책임(責任)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글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자율'이란 관점에서 논술하라.

남의 자유를 부인(否認)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다. 또한 무한한 자유란 그것에 대한 무한한 박해(迫害)만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를 파괴하는 외부적인 권력의 남용(濫用)을 경계하듯이, 자유의 과잉현상을 초래하는 내부적인 자유의 남용도 경계해야 한다. 자유의 과잉이란 결국은 자유의 파괴로 치닫는 지름길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제멋대로 행동하는 무절제한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아는 능력, 즉 '자율(自律)'에 기초해야 한다. '자율적인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러면, 자율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선택과 책임이다. 선택은 행위의 책임이요, 책임은 행위의 끝이다. 선택이 권리라면 책임은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율은 권리인 선택과 의무인 책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친화력이다. 선택만이 있고, 책임이 없을 때, 그리고 책임만이 있고 선택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율이라고, 나아가서는 자유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행위의 논리상 선택과 책임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 그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나 책임지기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선택에서보다는 책임에서, 즉 권리의 행사보다는 의무의 이행이 자유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행위는 자율적(自律的)행위이자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겠다.

4) 공산주의의 쇠퇴와 그 역사적 교훈

-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여기서 배워야 할 역사적 교훈에 대하여 논술하라.

2. 민족주의,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1) 민족주의의 개념과 역사

- 요즘 독일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극우 청소년들의 폭력이 빈발하고 있다. 이들은 나치즘의 부활을 주장하는 신나치주의자들로 이른바 스킨헤드로 일컬어지는, 전투적인 인상을 주는 삭발을 하고, 인종차별적인 구호를 공공연히 외치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방화, 폭행, 살인을 자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논술하라.

2) 세계화와 우리의 민족주의

- 월드컵 한국 유치는 우리의 문화를 세계화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한다. 왜냐하면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우리 문화를 전파매체에 실어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단순히 우리 문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과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가. 세계 속의 한국 문화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전통문화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논술하라.

3)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형성 및 실태

-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실시한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단순하고 맹목적인 자유 그 자체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훌륭하게 정착된 나라의 사람들은 맹목적 자유를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엄격하게 사회법규를 지킨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이상과 서로 배치되는 것인가. 만일 두가지가 상호 배치되지 않고 일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법과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논술하라.
- 다음 글은 자본주의가 낳은 부정적 결과들을 언급한 글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적 결과가 결코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 제시된 글의 내용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자본주의가 낳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논술하라.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연 자원을 무계획적으로 이용하여 자연 생태계 파괴라는 문제점을 낳았으며,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富)가 소수 개인의 점유물이 됨으로써 부를 소유한 소수 집단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간의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 소외를 심화시켰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갖는 모순은 사회적 불평등에만 그치지 않는다. 나아가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먼저 산업 자본주의를 이룩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들 사이의 불평등까지 심화시킨다.

4)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인간화

- 신문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음란한 사진, 만화, 소설 등을 신문에 실

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행위이므로 자유방임해야 할 것인가? 이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 다음 글은 '소비는 미덕이다'는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다. 이 글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바람직한 소비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소비(消費)는 미덕(美德)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현대 산업 국가에 있어서 소비는 생산을 낳고, 생산은 고용을 창출하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온다는 소비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할 때에 쓰이는 말이다. 또 이 말은 오늘의 산업화된 사회의 소비 생활과 경제 윤리가 정략과 검소를 미덕으로 여겨왔던 전통적인 소비생활이나 경제윤리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가 미덕인 사회'는 곧 경제 발전을 이룩한 풍요로운 선진 산업 국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변화된 소비 환경 속에서 무절제한 소비 성향이 만연되어 있고, 수입개방과 각종 소비재의 범람 등으로 인해서 과소비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과연 이러한 식의 소비도 미덕인가? 또 '소비가 미덕인 사회'가 반드시 좋은 사회인가?

3. 국제 관계와 윤리

1) 국제 관계의 본질과 변화

- 핵무기는 군사력의 척도로서, 국가 안보를 확립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는 실험 자체만으로도 방사능 오염, 지구 온난화 등 엄청난 환경 파괴를 가져오고, 전쟁 중에 대규모로 사용된다면 인류가 전멸하게 될지도 모른다. 비록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 우리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환경 오염 및 인류 전멸의 위험성을 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2) 국제 관계에서의 윤리성

- 다음 글의 취지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제3의 견해를 제시하라.

오늘날, 선(善)이나 악(惡)과 같은 도덕적·윤리적 규범이 냉혹한 국제 관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국제 관계의 본질상, '국가의 이익 추구가 중시되는 현실에서 국가간의 도덕성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다. 도덕주의자들은 천진난만하게도 국제 관계에서 도덕성을 강조하겠지만,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현실주의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환경에 의해 권력 지향적 악행(惡行)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마다 제각기 다른 지정학적 조건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그 국가의 능력과 외교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제기구, 또는 세계 정부를 통해서 국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도덕주의자들의 견해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간의 문제는 대부분 힘으로 해결되며, 결국 강자만이 자기 이익을 관철할 수 있다는 홉스식의 자연 상태가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다음 자료를 읽고, '국제정치에 있어서 윤리의 문제'를 주제로 하여 완성된 논술문을 쓰라.

1945년 여름, 미국에서는 새로 개발한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하는 문제를 놓고 세 집단이 관여했다.

첫 번째 집단은 원폭의 완성을 위해 일한 과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폭탄의 가공할 효력을 잘 알고 있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처럼 파괴력이 있는 폭탄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었으나, 다른 과학자들은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집단은 원폭계획에 직접 관계하고 있던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원폭계획은 행정적 임무의 하나에 불과하며, 일본을 항복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단기간에 완료시켜야 할 계획이었다. 트루먼 대통령과 육군, 해군, 각 장관을 포함한 고관으로 구성된 세 번째 집단도 원자폭탄을 소련이 일본에 대한 군사 행동에 깊게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그리고 강제적으로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소련군이 일본 공격에 참가하게 되면, 소련 정부가 그 대가로서 패배한 독일에서의 경우처럼 자신의 점령구역을 요구하고 나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계획에 참가한 소수의 과학자들을 제외한다면 그 외의 정책 결정자들은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도의적, 윤리적 문제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정책 결정자는 모두 폭탄이 도시에 투하되면 도시의 황폐화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만명의 사상자와 그에 맞먹는 수의 부상자가 나올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극적으로 과시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다.

일본 본토 공격은 1945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실행될 경우 50만에서 100만명의 미군 사상자와 그 이상의 일본인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었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원자폭탄의 사용을 미룸으로써 미일 쌍방의 막대한 사망자가 나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한두 개의 도시를 파괴하여 일본 정부가 항복을 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뿐이었다.

3)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각

- 이른바 국제화시대의 실현과 함께 각 나라간의 문화교류가 잦아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기나라의 고유성 혹은 특수성을 드러내는 문화상품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자신이 한국의 고유성 혹은 특수성을 드러내는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기획을 담당한다면 어떠한 문화상품을 기획·개발하겠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언어는 곧 그 민족이라는 말을 한다. 다행히 우리는 민족어라고 말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우리 말과 글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민족어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러한 민족어로서 우리말의 장래는 어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민족어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우리의 할 일에 대해 논술하라.

IV. 윤리 사상의 흐름과 특징

1. 동양 윤리 사상

- 다음 글을 읽고 '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혹자(或者)는 “천도(天道)는 공평무사(公平無私)해서 항상 착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백이(伯夷), 숙제(叔齊) 같은 사람은 인덕(仁德)을 쌓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였음에도 굶어서 죽었고,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학문을 좋아하였던 안연(顔淵)은 항상 가난해서 거친 음식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끝내 요절하고 말았다.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상해 준다고 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도적 같은 큰 도적은 날마다 죄없는 사람을 죽이고 포악무도한 짓을 함부로 하여 수천 명의 도당을 모아 천하를 횡행하였지만 끝내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다. 이것은 그가 덕행을 쌓았기 때문인가?

근자에 이르러서도 품행의 정도(正道)를 벗어나고, 오로지 사람들이 꺼리고 싫어하는 일만 범하면서도 종신토록 안일향락하고 대대로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거망동을 앓고 공명정대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은가? 만약 천도가 참으로 존재한다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지 심히 의혹스러울 뿐이다.

- 다음 글과 같이 현대 문명 사회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응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응전의 방안을 동양 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라.

자연 환경의 도전에 대한 응전에 성공한 결과 원시 사회는 문명으로 비약한다. 그런데 그 사회가 계속 성장하려면 항상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응전이 필요하다. 한 문제의 해결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 그것을 해결하는 도전과 응전이 계속되지 않으면 문명은 성장을 계속하지 못한다. 이 성장기의 도전은 자연 환경으로부터의 도전이기도 하고 이웃의 다른 문명이다. 야만 사회의 침략과 같이 인간 환경으로부터 오는 도전일 수도 있으나 가장 중대한 도전은 그 문명 자체가 만들어 내는 문제이다. 그 문제는 경제적인 것일 수도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으나, 한 문명이 성숙하면 할수록 도전의 성질이 물질적인 데서 도덕적·정신적인 데로 그 차원이 높아진다.

- 동양의 사상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中庸)'에 바람직한 인간형을 두고 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중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술하라.

2. 서양 윤리 사상

- 합리론과 경험론은 인식의 원천과 관련해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합리론과 경험론은 인식의 원천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두 입장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자신의 견해를 밝혀라.
- 다음 글을 읽고 관념론과 실재론 가운데 어느 한 입장을 택하여 그 정당성을 논술하라.

인식의 대상이 우리 주관을 떠나서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관이 그것을 인식함으로써만 존재한다는 주장을 관념론(觀念論, idealism)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립되는 견해가 실재론(實在論, realism)이다. 이것은 주관과 관계 없이 대상이 객관적 독립적으로 실재한다는 주장이다. 관념론과 실재론은 옛부터 서로 다투어 왔다. 아메리카 대륙이 이미 있었으니까 콜럼버스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실재론의 주장에 대해서 관념론은 콜럼버스가 발견했으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가 보기 전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라고 반문한다. 이 두 입장의 대립은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싸움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이 두 집장의 다툼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실재론자(A)가 관념론자(B)와 싸우다 못해 피를 생각해 냈다. A가 B를 보고 앞에 있는 벽을 보고 돌진해 가라고 일었다. B가 그대로 하니 이마에서 피가 나오고 몹시 아팠다. A가 "이제 벽이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재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인할 테지?"라고 물으니 B는 "아프다는 감각, 피가 흐른다는 감각이 있을 뿐이지 그 외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과 '바르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의 태도 중 한 견해를 택하여 그것의 정당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하라.
- 다음 글을 읽고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목적론적 윤리설(결과론적 윤리설)과 의무론적 윤리설(법칙론적 윤리설) 중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입장을 선택하여 정당성을 밝히고 다른 입장을 적절하게 비판하라.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대형 유람선을 타고 인도양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밴드의 멋진 음악에 맞춰 한참 재미있게 춤추고 놀다가 1층갑판에 나와 향긋한 밤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발음이 나면서 순식간에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제가 탄 배가 마주오는 배와 정면 충돌한 모양입니다. 비상사다리가 내려지고 구명 보트가 바다에 내려졌습니다. 마침 갑판에 나와 있던 저는 재빨리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구명보트에 올라 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배 안에 남아 있다는 생각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배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명보트에 올랐을 때 이미 십수명의 사람들이 올라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지만 사실 구명보트의 정원은 15명이었습니다. 제가 올라타고 난 뒤 또 여러 사람이 올라탔고 승선한 몇몇 사람들이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구명보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탄 탓에 거이 가라앉을 듯 했습니다. 구명보트가 서서히 유람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처 구명보트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헤엄을 쳐 제가 탄 구명보트에 다가와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사력을 다해 구명보트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구명보트에 거의 몸을 얹었을 때 구명보트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탔던 것입니다.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저는 순간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이나마 사태를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두사람이 타면 필연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 괴롭지만 저 두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정말이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저는 지금도 모두가 인정합니다. 저는 그 두사람들 구명보트에서 밀어내 바다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구명보트는 간신히 바다에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거의 순식간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제서야 유람선 안에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둔 것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밀어낸 두 사람은 사망했을 게 틀림없습니다. 구명보트가 15시간을 헤멘 끝에 서야 구조되었거든요. 물론 저의 아내와 아이들도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저의 행위에 대해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무조건 위로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평가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달게 그 처벌을 받겠습니다.

- 다음에 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참고로 하여 “중용과 정의는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술하라.

갑: 너는 매사에 생각과 판단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책에서 읽었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용'은 인생의 주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서,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안에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쾌락에 탐닉하거나 욕망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인색하거나 씩씩이가 해픈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거야. 만용을 부리거나 비겁하게 구는 것도 모두 '중용'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해. 앞으로는 너도 좀 '중용'의 덕을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을: 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른 거지. '중용'이 왜 필요하다는 거야? 난 내가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못함' 사이의 중간을 택하는 것이 좋겠니?

3. 한국 윤리 사상

-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예절과 도덕을 숭상하는 전통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서양에서의 윤리, 도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요즘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우리의 전통 예절이나 도덕을 따르지 않고, 서양의 그것을 따르는 경향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전통적 입장에 서서 젊은이들의 지켜야 할 예의와 도덕에 대하여 논술하라.
-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이자 생활윤리였던 유학(유교, 儒敎)이 우리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그동안은 부정적 비판들이 지배적이었다. 유학이 우리 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유교의 사상적 측면과 현실에의 응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장단점을 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술하라.

V. 통일의 과제와 전망

1.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

1)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 최근 우리 주변에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든가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논술하라.
- 다음은 ‘한반도의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향’이라는 글의 서론이다. 이 글에 이어지는 본론과 결론만을 700자 이상 800자 이내로 작성하라. (단, 베트남과 독일의 예는 자세히 거론하지 말고, 반드시 한반도의 현실을 중심으로 하여 애매한 절충적 통일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할 것)

냉전체제의 전세계적 해체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채로 남아 있다. 그 방식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에게 앞서 통일을 이룩한 나라로는 베트남과 독일 등이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사회주의 북베트남에 의한 자본주의 남베트남의 무력적 통합이었다. 이와는 달리 독일은 자본주의 서독이 사회주의 동독을 급격히 흡수통합한 사례였다.

그런데 이 두 경우의 통일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을 종속화한 통일이라는 점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베트남은 ‘도이모이(쇄신)’ 정책을 통해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경제 방식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불안전성을 노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경우, 구 서독은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로, 구 동독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림으로 말미암아 독일 전체에 나찌즘 부활의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베트남의 사회주의적 통일과 독일의 자본주의적 통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제3의 통일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남북한의 통일관과 통일 정책

- 【나】, 【다】의 내용을 고려하여 【가】에 제시된 두 가지 통일 방안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이를 옹호하고 다른 하나를 비판하는 견해를 제시하라.

【가】 두 가지 통일 방안

	A	B
명 칭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고려연방공화국창설방안
통일 과정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민족통일→국가통일)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 (국가통일→민족통일)
통일국가형태	1민족1국가1체제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국가

【나】 서독이 동독을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 하였다. 독일 통일의 요인은 서독의 적극적인 대 동독 정책으로 협력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점과 서독의 발전과 정치·경제 체제의 정당성 확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 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동독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통일 비용 때문에 독일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독일은 지금 물가 폭등, 주택난, 실업 등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두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사회 통합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다】 “한국인들은 한반도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통치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커다란 오산이다. 김일성이 죽었지만 통일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통일의 장애 요인이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옛 소련의 와해로 보아 곧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남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남한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살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과 남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 민족 통일의 조건

- 국제적 통일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술하라.
-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3. 통일 이후의 전망

- 통일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논술하라.
- 통일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질 수 있는지, 낙관적인 면과 비관적인 면을 논술하라.
-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관한 각종 여론 조사에서 빠짐없이 지적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의식'이 약하다는 것이다. 즉, 책임감, 합리성 같은 개인적인 윤리의식은 강하나 준법, 봉사, 고발 정신 등의 공동체 의식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비추어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대해 논술하라.

감사의 글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 기대하며 뿌린 씨앗이 이제 아홉 번째 계절을 보내며 한 편의 논문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족함 많은 저를 끝까지 지도해 주신 양방주 교수님을 비롯한 국민윤리교육과의 모든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2년 반의 시간을 동고 동락했던 네 분의 선생님과,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과 제주일고의 모든 선생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학업의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내와 훌쩍 커버린 석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나래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1997년 8월

진 규 섭